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Companies of Korea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2 0 1 7
중 견 기 업
가 업 승 계
실 태 조 사

CONTENTS

PART I

요약문	9
1. 조사 목적	10
2. 조사 설계	10
3. 참여기업 현황	10
4. 조사 결과	11
<hr/>	
조사의 개요	15
1. 기업승계에 대한 이해	16
2.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	16
3.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의 목적	19
4. 조사 설계 요약	19
5. 조사 내용	20
6. 과업 수행 프로세스	21
7. 자료의 처리	21

PART II

조사 결과 요약	23
1. 기업 일반 현황	24
2. 기업승계 인식	25
3. 기업후계자 선정 및 역량	26
4. 기업승계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29

PART III

조사 결과	31
1. 일반 현황	32
2. 기업승계 인식	34
3. 기업후계자 선정 및 역량	46
4. 기업승계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59

PART IV

부록	69
-----------	----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표제목

PART I 	표1] 조사설계 요약	10		표21]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비혈연 승계)	51
	표2] 승계유형별 승계 대상자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복수응답))	12		표22] 기업 승계 시기 계획	52
	표3]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	17		표23] 후계자 자질	54
	표4] 상속·증여세율	18		표24] 후계자 양성 방안	56
	표5] 상속·증여세율	18		표25] 후계자 경영 수업 기간	58
	표6] 조사 설계 요약	19		표26] 기업승계 애로사항	60
	표7] 조사내용 요약	20		표27] 명문장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61
	표8] 자료 처리 절차	21		표28]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 및 지원기관 추진 사업	63
PART II	표9] 승계유형별 승계 대상자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복수응답))	27		표29]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의사	64
	표10] 기업승계 계획 시기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28		표30]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기업 혜택	67
	표11] 후계자 자질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28			
PART III 	표12] 기업체 현황 빈도표	33			
	표13] 가족 기업 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	35			
	표14] 기업승계 정책 문서작성 공개여부	37			
	표15] 기업 승계 정책에 포함된 사항	39			
	표16]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경험	41			
	표17]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활동	43			
	표18]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	45			
	표19]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48			
	표20]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혈연 승계)	50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그림제목

PART I	그림1] 승계유형별 긍정인식 비율 변화	11		그림21]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49
	그림2]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13		그림22] 기업 승계 시기 계획	52
	그림3] 연구 진행 프로세스	21		그림23] 후계자 자질(복수 응답)	53
	그림4] 승계유형별 긍정인식 비율 변화	25		그림24] 후계자 자질(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54
PART II	그림5]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29		그림25] 후계자 양성 방안 (기존 그림 24 그림 이름 변경)	55
	그림6] 기업체 현황 - 매출액, 규모	32		그림26] 후계자 경영 수업 기간	57
PART III	그림7] 기업체 현황 - 업력, 업종 구분	33		그림27] 후계자 경영 수업 기간(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57
	그림8] 가족 기업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	34		그림28] 기업승계 애로사항(복수 응답)	59
	그림9] 가족 기업 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	35		그림29] 기업승계 애로사항(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59
	그림10] 기업승계 정책 문서작성 공개여부	36		그림30] 명문장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	61
	그림11] 기업 승계 정책에 포함된 사항(복수응답)	38		그림31]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 및 지원기관 추진 사업	62
	그림12]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경험	40		그림3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의사	64
	그림13] 승계 유형별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경험	40		그림33]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기업 혜택(복수 응답)	66
	그림14]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활동(복수응답)	42			
	그림15]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복수응답)	44			
	그림16]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 (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45			
	그림17]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46			
	그림18] 승계유형별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47			
	그림19]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48			
그림20]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49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요약문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요약문

1. 조사 목적

- 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기 위한 기업승계와 관련한 인식, 준비사항,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승계 정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있다.

2. 조사 설계

- 본 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조사 설계 요약

구분	내용
조사대상	• 2015년말 기준 중견기업
모집단	• 국내 중견기업 3,558개 대상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FAX, E-Mail 등 복합조사 진행
표본추출	• 사전 리스트를 기반으로 단순임의표본추출 적용
조사표본수	• 전체 125개 기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8.61%p
조사기간	• 2017년 10월~11월

3. 참여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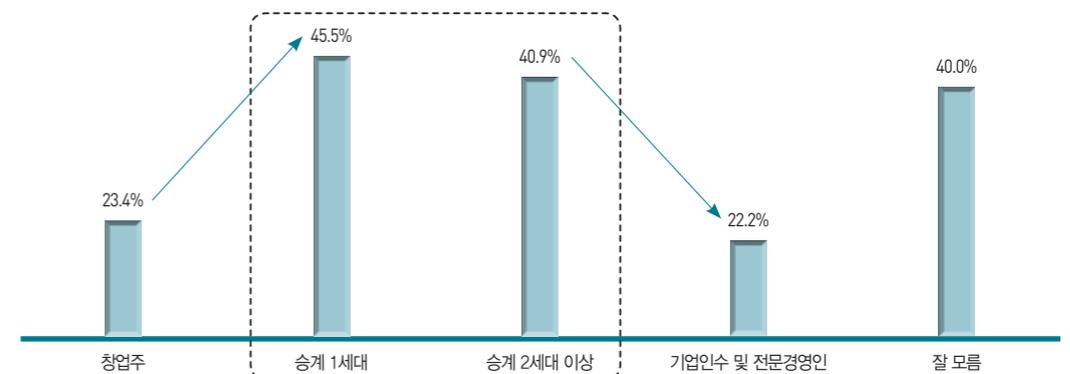
- 이번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실태조사에는 평균 매출액 2,910억원, 평균 종사자 규모 648명, 평균 업력 36.7년의 국내 중견기업 125개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 참여한 기업들 중 상장기업이 전체 65.6%이고, 전체 73.6%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외감기업이 37.6%, 유가증권시장 기업이 36.0%, 코스닥시장기업이 26.4% 등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이미 기업승계를 진행한 기업은 전체 44%로 나타났고, 아직 창업주인 기업은 37.6%, 전문경영인인 경우는 14.4%의 분포를 보였다.

4. 조사 결과

1) 기업승계(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중견기업에서 바라보는 기업승계 또는 가업승계가 기업의 지속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영향을 준다 - 32.8% : 부정적 영향을 준다 - 11.2%)
 - 기업승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는 특히, 현재 기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창업주인 기업과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1] 승계유형별 긍정인식 비율 변화



-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승계기업들은 기업승계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기업승계 준비의 필요성

-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도는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기업 내에서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내 기업승계 정책에 대한 문서작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12.8%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3.2%만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밖의 87.2%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기업승계와 관련한 이사회 심의, 의결 경험 역시 전체 12%만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88%는 이사회 심의, 의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중소기업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규모의 차이가 큰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승계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 형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인식의 변화는 가져오고 있으나 실행을 위한 행동의 단계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기업들의 기업승계의 정당성 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임직원 및 이사회와 정보교환, 자원조달 방안 마련, 승계관련 절차, 법률 등 전문인력 운용 등으로 나타났다.

3)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실천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였다.
 - 중견기업들은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경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때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서서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 기업후계자 선정과 승계계획

- 본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승계 유형으로 혈연승계가 전체 86.4%로 비혈연 승계의 13.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 일러두기

기업후계자 선정과 승계계획의 경우 2016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조사가 패널구축을 통한 트래킹 조사가 아니므로 2016년 조사기업과 2017년 조사기업이 동일하지 않아 연차별 정확한 비교의 의미를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따라서, 본 연차별 비교결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중견기업들의 인식의 변화와 흐름을 잡아내는 역할로 활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혈연승계 대상자에 대해 자녀가 8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나 이는 2016년 조사 결과 (96.8%)보다 조금 낮아진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또는 형제인 경우가 8.3%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혈연승계인 경우 대상자가 비자녀 대상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역량 있는 후계자에게 승계하려는 것과 승계를 거부하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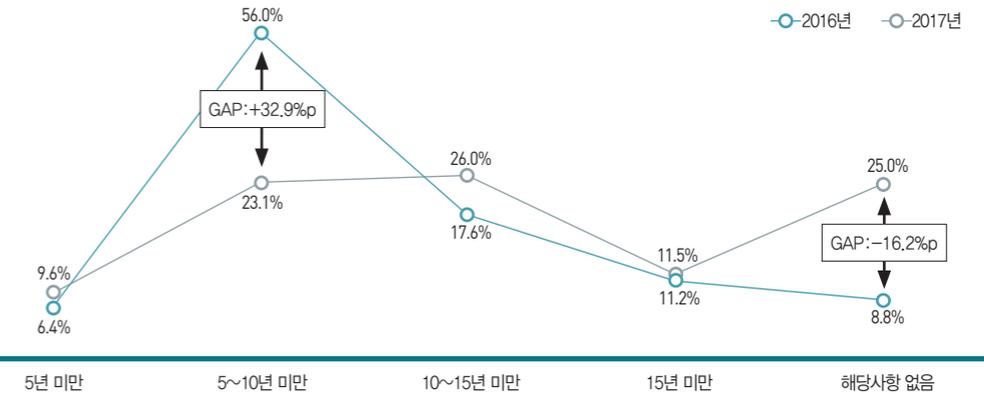
[표2] 승계유형별 승계 대상자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복수응답))

	사례수	혈연 승계인 경우 대상자			사례수	비혈연 승계인 경우 대상자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사위		임직원	관련 전문가 혹은 지인
2016년 응답	95	96.8%	2.1%	2.1%	14	71.4%	42.9%
2017년 응답	108	88.9%	8.3%	1.9%	17	70.6%	29.4%
GAP (2017-2016)	13	-7.9%p	6.2%p	-0.2%p	3	-0.8%p	-13.5%p

- 본 조사를 통해 후계자의 적정 경영수업 기간은 5~10년 미만이 가장 많은 56%로 나타났고, 기업승계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실행하였거나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10년 이후로 계획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견기업들은 후계자의 경영수업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실질적인 승계 시기를 경영수업이 끝난 10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 중 후계자 적정 경영수업 기간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5년~10년 미만 기간은 2016년 동일응답 결과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기업들의 승계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후계자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2]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경영철학 및 기업이 정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리더십 및 조직관리, 전문적 지식 및 기술, 글로벌 경영능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후계자 자질에 대해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리더십 및 조직관리, 전문지식과 기술, 글로벌 경영능력 등은 모두 전년도 대비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현재 기업 내에서 후계자의 자질로 실행 능력 제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 앞서 분석된 결과는 후계자 양성 방안으로 전체 72%가 사내근무 방식을 선택한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 이는 현재 기업들의 후계자 교육·양성 방향이 실력 중심의 능력 고양과 이를 통해 기업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후계자의 교육과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등 2마리 토끼를 모두 확보하는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전수와 후계자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기업승계의 애로요인과 필요한 정책과제

- 기업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승계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으로는 법률, 조세, 회계, 경영 컨설팅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기업승계, 신사업/M&A, 명문장수기업 등을 통합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 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기업승계 컨설팅 지원은 기업 본연의 업무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기업 수요도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기업승계의 활성화와 중견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위해 정부 및 지원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계획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17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PART

I

조사의 개요

1. 기업 경영승계에 대한 이해
2. 우리나라 기업승계 지원제도
3.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목적
4. 조사 설계 요약
5. 조사 내용
6. 과업 수행 프로세스
7. 자료의 처리



PART I
조사의 개요

1. 기업승계에 대한 이해

- 기업승계(企業承繼, Businesses Succession)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증여 또는 매각 등을 통해 소유권(Ownership)과 경영권(Management)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말하며, 대체로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기업승계는 경영자가 자신의 직계혈족 등 친족 중에서 후계자를 선정하여 기업을 승계하는 “친족 내 승계”와 종업원·전문경영인의 영입 등 외부의 후계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친족 외 승계” 또는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M&A에 의한 승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기업승계는 친족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법률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가업승계’(家業承繼, Family Businesses Succession)는 친족 내의 후계자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기업승계’는 ‘가업승계’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기업상속공제 제도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 등을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 한도)를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2) 증여세 과세특례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기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표3] 기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

(2017년 12월 기준)

구분	기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법인 모두 가능 • 중소기업 및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만 가능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 • 공제한도 가업경영기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계속 경영 200억 원 - 15년 이상 계속 경영 300억 원 - 20년 이상 계속 경영 50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30억 초과분은 20%) • 공제한도: 100억 원 ※상속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정산 후 증여세액 공제
피상속인 (증여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 • 대표이사 재직기간(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 -상속직전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부모 • 1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
상속인 (수증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상속개시 2년 전 가업 종사 <small>*예외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 시</small> • 신고기한(6개월) 내 임원 취임하고 상속 개시일 이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공동상속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자녀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 가업 종사 • 증여일 이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의무 이행요건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5년간 90% 이상 유지) • 상속인 가업종사(대표이사) 유지 <small>*세분류내 업종변경, 1년 미만 휴업 가능</small> • 상속지분 100% 유지 • 매년 상속 직전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80% 유지 • 10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100% (중견기업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 가업 및 종사 유지(7년) • 증여지분 100% 유지
사후관리 불충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요건 충족 기간에 따라 안분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미만 10% 추징 - 7년 이상 ~ 8년 미만 90% 추징 - 8년 이상 ~ 9년 미만 80% 추징 - 9년 이상 ~ 10년 미만 70%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표4]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3) 연부연납 제도

- 상속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포함 최대 15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

[표5] 상속·증여세율

세 목 별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	기업상속	50% 미만	2년 거치 후 5년 간 분할 납부(최장 7년)
		50% 이상	3년 거치 후 12년 간 분할 납부(최장 15년)
	일반재산	5년 간 분할 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 간 분할 납부(거치기간 없음)	

※ 2017년 개정세법 중 기업승계 관련 주요내용

1. 기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현행	개정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 500억원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 500억원

2.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현행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기업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기업상속 공제 적용 배제

3. 연부연납 확대 및 합리화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2년 거치 5년 납부 -기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3년 거치 12년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부연납 기간연장 및 거치기간 선택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10년 (3년 거치 가능) -기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20년 (5년 거치 가능)

3.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목적

- 현재 강화된 상속세법으로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승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사회적 합의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준비사항,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승계 정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수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목적이 있다.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에 기초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여 정부의 기업승계정책 및 지원사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4. 조사 설계 요약

- 본 조사는 2017년 10월~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조사 설계 요약

구분	내용
조사대상	• 2015년말 기준 중견기업
모집단	• 국내 중견기업 3,558개 대상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FAX, E-Mail 등 복합조사 진행
표본추출	• 사전 리스트를 기반으로 단순임의표본추출 적용
조사표본수	• 전체 125개 기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8.61%p

- 본 조사에 사용된 기업체(모집단) 리스트는 해당 연구를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제공하여 진행되었다.

5. 조사 내용

-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설문지는 본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7] 조사내용 요약

구분	내용
Part1. 기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정보 (상장 여부, 계열사 유무, 이사회 구성, 설립년도) 피상속인 (오너) 정보 (성별, 기업승계 세대유형, 시기 등)
Part2. 기업승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력 기업승계 정책 문서화 공개여부 - 승계정책 문서 포함내용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 의결 경험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 활동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필요 노력
Part3. 기업후계자 선정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기업승계 계획 시기 후계자 자질 / 후계자 양성 방안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
Part4. 기업승계 애로요인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승계 관련 애로사항 명문장수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원기관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의향 - 선정기업에 필요한 혜택

6. 과업 수행 프로세스

- 본 조사 수행단계의 절차적, 분절적 인식을 통한 효율적인 과업수행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업 진행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그림3] 연구 진행 프로세스



7. 자료의 처리

- 최종 조사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 과정을 거치며, 오픈문항(주관식 형태)으로 입력된 데이터는 부호화 작업인 코딩(Coding) 과정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입력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는 데이터검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8] 자료 처리 절차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Data Analysis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 확인작업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 입력 작업	입력자료의 오류검색 (육안검색 및 프로그램 확인)	최종 Raw-Data를 기반으로 통계분석 및 정리



2017
중견기업
가실태
승조
업계사

2017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PART II

조사 결과 요약

1. 기업 일반 현황
2. 기업승계 인식
3. 기업후계자 선정 및 역량
4. 기업승계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PART II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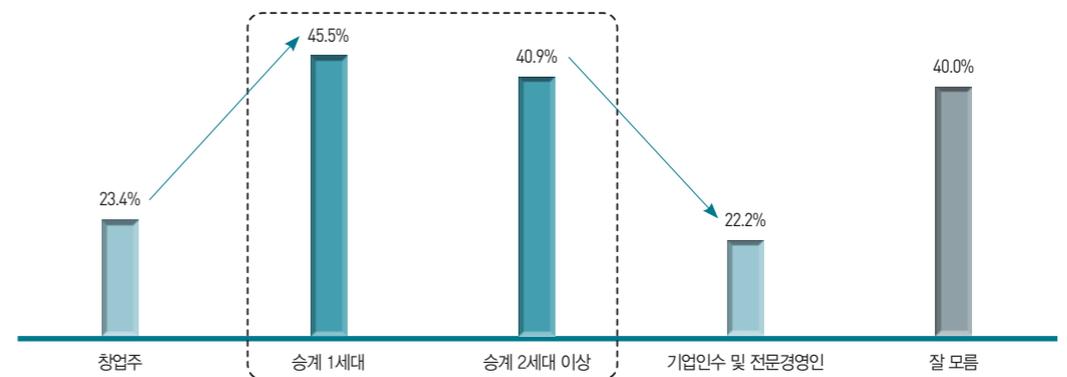
1. 기업 일반 현황

- 본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들의 매출규모는 2,000~3,000억 미만인 30.4%로 가장 많았으며, 1,000~2,000억 미만이 29.6%, 3,000억 이상이 28.0%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 3,000억을 기준으로 미만인 기업은 전체 72.0%였으며, 3,000억 이상 기업은 28.0%로 조사되었다. 전체 125개 참여 중견기업들의 2016년 매출액은 평균 2,910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종사자 규모로는 300명 미만이 41개 기업(32.8%)으로 가장 많았고, 500명~1,000명 미만이 40개 기업(32.0%), 300명~500명 미만 기업이 29개 기업(23.2%), 1,000명 이상 기업은 15개 기업(12.0%) 등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중견기업들의 평균 종사자 수는 648명으로 집계되었다.
- 업력분포는 30년 미만이 41개 기업(32.8%)로 가장 많았고, 40~50년 미만이 35개 기업(28.0%), 30~40년 미만이 28개 기업(22.4%), 50년 이상이 21개 기업(16.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중견기업들의 평균 업력은 36.7년으로 집계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가장 업력이 오래된 기업은 69년(1948년 설립)으로 나타났고, 가장 업력이 짧은 기업은 10년(2007년 설립)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8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부업종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가장 많고,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전체 16.8%였으며, 세부업종으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합 건설업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들 중 상장된 기업은 82개(65.6%)였고, 비상장 기업은 43개(34.4%)로 집계되었다. 또한, 계열사가 있는 경우는 92개(73.6%)로 대부분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업유형별로는 외감미 47개 기업(37.6%), 유가증권시장이 45개 기업(36.0%), 코스닥시장이 33개 기업(26.4%) 등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들의 승계 세대유형을 구분하면, 현재 창업주인 경우가 전체 47개 기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계 1세대인 경우는 33개 기업(26.4%), 승계 2세대 이상인 경우는 22개 기업(17.6%)로 나타났다. 승계형태가 아닌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인 경우는 18개 기업(14.4%)으로 조사되었다.

2. 기업승계 인식

- 가족에 의한 승계가 기업의 지속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승계유형별 긍정적 인식 비율을 살펴보면, 아직 승계를 진행하지 않은 창업주보다 승계를 경험한 승계 1세대, 승계 2세대 이상의 기업에는 긍정적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승계가 아닌 전문경영인인 경우 인식도가 낮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 결과적으로 승계 경험이 있는 기업은 기업승계가 지속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4] 승계유형별 긍정인식 비율 변화



-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응답으로 정확한 영향력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확인되어, 기업승계와 지속성장 간의 상관성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기업승계 정책에 대한 문서작성 여부는 전체 응답 기업의 87.2%가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외 마련하고 있는 기업 중 현재 공개되어 있는 기업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기업승계에 대해 기업 내에서도 기본적인 승계 기준과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에 대한 파악도 물론 이거니와 기업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필요성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 앞서 기업승계 정책이 문서화 된 경우, 주요 내용으로는 주로 이사회 의 역할, 권한,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후계자 자격요건, 기준 내용, 기업승계 원칙과 철학, 후계자 선정 절차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이사회 의 심의, 의결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 1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8%는 이사회 의 심의, 의결 경험이 없다고 응답되었다.

-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기업승계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 활동한 사항으로는 주로 임직원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과 토론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채용조달 방안, 이사회와 정보교환, 승계 절차 및 적용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력 풀 운용 등의 순으로 활동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 제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도 20.0%로 나타났다.
 - 국내 중견기업들이 기업승계와 관련한 깊은 인식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부족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 안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 실천(53.6%)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을 배양(46.4%), 양질의 일자리 창출(28.0%), 성실한 법인세 납부(24.8%) 등 기업 내부에서의 인식의 전환과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행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 위와 같은 결과는 현재 국내 중견기업들의 경영인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한 경영쇄신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났고 이러한 노력은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 전반에 걸친 현재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3. 기업후계자 선정 및 역량

- 본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들이 관심 갖는 기업승계 유형은 혈연승계가 전체 86.4%로 대부분이었으며, 비혈연 승계는 13.6%로 조사되었다.
- 혈연 승계인 경우 승계 대상자는 자녀가 88.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배우자 또는 형제가 8.3%, 사위와 기타 친척이 각각 1.9%로 집계되었다. 반면 비혈연 승계로 응답한 17개 기업에서는 승계 대상으로 임직원이 70.6%, 관련 전문가 혹은 지인이 2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승계 유형에 대해 2016년에 조사된 결과와 비교하면, 혈연승계 관심도의 경우 2016년 91.3%로 나타났으나 이는 복수응답으로 응답된 결과이므로 이를 100% 환산 비율로 분석하면 84.1%로 환산된다.
 - 따라서, 올해 혈연승계 관심도는 86.4%로 2016년에 비해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혈연 승계의 경우 역시 2016년도 100% 환산 비율에 의하면 전체 12.4%가 응답하였고, 올해 비혈연 승계 관심도는 13.6%이니 약 1.2%p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2016년 3.5%로 나타났으나 올해에는 응답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업승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¹⁾
 - 여전히 혈연승계 대상으로 자녀의 비율이 높았으나,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자녀 대상(배우자 또는 형제)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을 물려주는 개념에서 실제 역량 있는 승계대상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비혈연승계인 경우 승계 대상자가 임직원인 경우 2016년은 71.4%로 조사되었고 2017년에는 70.6%로 나타나 약 0.8%p 낮았으나 유사한 응답비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9] 승계유형별 승계 대상자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복수응답))

	사례수	혈연 승계인 경우 대상자			사례수	비혈연 승계인 경우 대상자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사위		임직원	관련 전문가 혹은 지인
2016년 응답	95	96.8%	2.1%	2.1%	14	71.4%	42.9%
2017년 응답	108	88.9%	8.3%	1.9%	17	70.6%	29.4%
GAP (2017-2016)	13	-7.9%p	6.2%p	-0.2%p	3	-0.8%p	-13.5%p

- 기업승계 시기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이미 실행한 경우는 28.0%로 조사되었다. 반면, 승계 시기를 10년 후로 계획한 경우가 16.0%, 7년 미만인 6.4%, 5년 미만인 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거나 비교적 승계 시기를 늦게 가져가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 기업승계 시기 역시 201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먼저 이미 실행하였다는 응답은 2016년이 23.1%, 2017년이 28.0%로 약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와 반대로 계획이 없다는 응답비율 또한 2016년 22.1%에서 2017년 45.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와 같은 결과는 올해 설문 항목으로 제시된 기간 분포가 전년도와 다르게 10년 이하에서만 제시되어 그 이후 기간을 생각한 경우 “계획 없음”을 선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기업승계 시기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제시된 기간 분포가 서로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10년 미만인 비율은 2016년이 39.4%가 응답한 것이 비해 2017년은 8.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10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이 15.4%, 2017년이 16.0%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1) 단, 본 조사가 패널구축을 통한 트래킹 조사가 아니므로, 2016년 조사기업과 2017년 조사기업은 동일하지 않음. 이에 따라 응답결과 연도별 비교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내는 역할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2016년에 10년 미만으로 승계 시기를 계획한 경우, 일부는 그 사이 실행이 되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계획이 없어진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10] 기업승계 계획 시기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사례수	이미 실행	10년 미만	10년 이후	계획 없음
2016년 응답	104	23.1%	39.4%	15.4%	22.1%
2017년 응답	125	28.0%	8.8%	16.0%	45.6%
GAP (2017-2016)		4.9%	-30.6%	0.6%	23.5%

-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경영철학 및 기업가 정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리더십 및 조직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항목별로 리더십 및 조직관리,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글로벌 경영능력 등은 모두 전년도 대비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현재 기업 내에서 후계자의 자질로 실무적 차원의 실행 능력 제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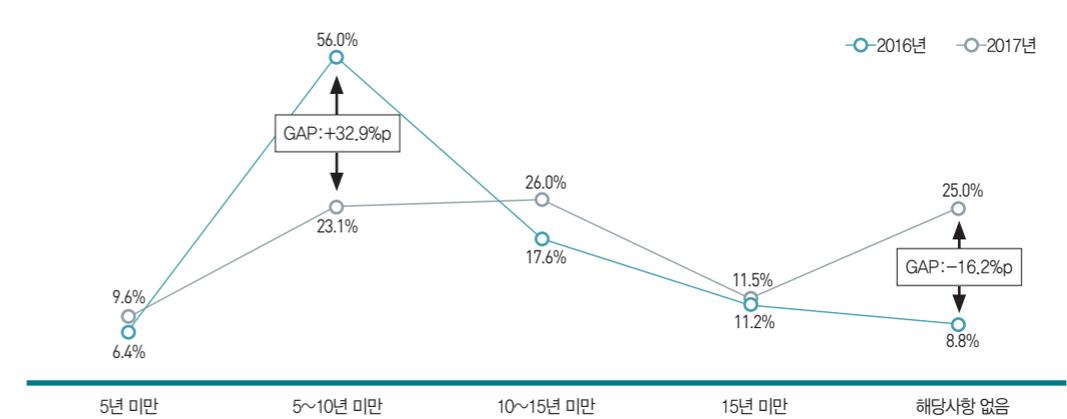
[표11] 후계자 자질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사례수	경영철학 및 기업가 정신	리더십 및 조직관리	전문적 지식 및 기술	글로벌 경영능력	도전정신, 창의성
2016년 응답	104	61.6%	28.6%	4.5%	4.5%	0.9%
2017년 응답	125	50.4%	32.8%	7.2%	6.4%	3.2%

- 후계자 양성 방안으로 사내근무가 전체 72.0%로 가장 높았으며, MBA과정 등 외부 교육이 9.6%, 동종업계 근무가 6.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결과와 비교할 때 사내근무의 비율(62.5%)이 높아졌고, 동종업계 근무와(18.3%) MBA과정 등 외부교육(16.3%)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 앞선 후계자 자질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기업들의 후계자 교육·양성 방향은 실력 중심의 능력을 고양하고 이를 기업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후계자의 교육과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등 2마리 토끼를 모두 확보하는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이는 후계자의 실무감각을 배양한다는 차원과 더불어 기업의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우수한 인재(역량이 갖춰진 후계자)를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양상을 띄고 있어 기업들의 긴박한 경영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후계자의 적정 경영수업 기간에 대해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인 56%가 5~10년 미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15년 미만이 17.6%, 15년 이상이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앞서 기업승계 시기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현재 계획이 없거나 이미 실행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승계 계획 시기를 10년 이후로 응답된 것과 비교하면 기업에서는 후계자의 경영수업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실질적인 승계 시기를 경영수업이 끝난 10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 부분은 2016년 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2016년에는 적정 경영수업 기간을 10~15년 미만으로 보는 경우가 26%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이 2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10년을 기준으로 10년 미만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비율은 2016년이 32.7%, 2017년이 62.4%로 약 30%p 정도 비율이 증가하였고, 10년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비율은 2016년이 37.5%, 2017년 28.8%로 8.7%p 감소하였다.
 - 10년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비율이 2017년에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2016년 25%에서 2017년 8.8%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분석된다. 이는 2016년에 비해 후계자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 경영수업 기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5]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 (2016년 / 2017년 결과 비교)



4. 기업승계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제도와 후계자 역량 부족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는 2016년 결과에서도 유사한 응답결과를 보였다.
 - 2016년 역시 기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제도, 후계자 역량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식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승계 활성화와 명문장수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으로 전체 41.6%가 정부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 추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상속공제 제도 개선(33.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세제 혜택 부여(30.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 및 지원기관이 추진해야 할 지원사업으로 법률, 조세, 회계, 경영 컨설팅 지원 전체 48.0%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 이는 앞서 기업승계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제도가 높은 응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집어줄 수 있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그 외에도 기업승계, 신사업/M&A, 명문장수기업 등을 통합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도 높은 응답을 보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진행 된다면 기업들의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들은 올 6월부터 시행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신청할 의향이 62.4%로 나타났다.
- 이 경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가장 많은 의견은 역시 상속세, 증여세 삭감(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정부 포상 및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34.4%), 국내외 기업 및 제품 홍보(28.0%)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명문장수기업 선정 혜택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2017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PART III 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2. 기업승계 인식
3. 기업후계자 선정 및 역량
4. 기업승계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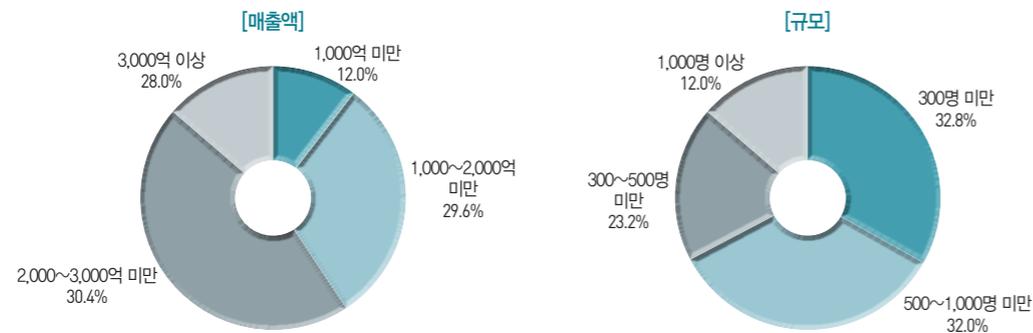
PART III
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1) 기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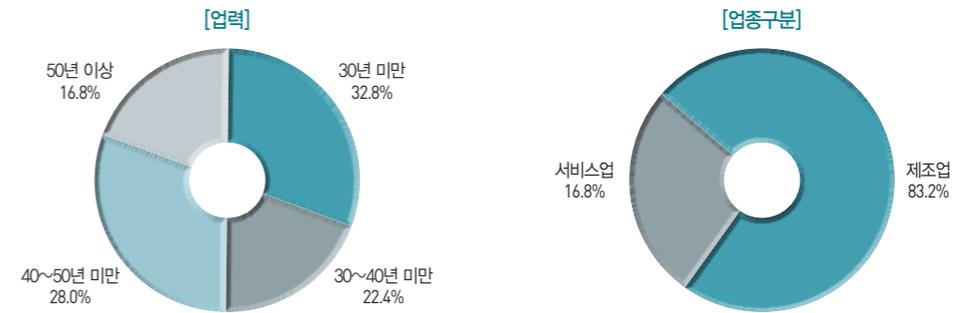
- 본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들의 매출액은 2,000억~3,000억 미만(3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억~2,000억 미만(29.6%), 3,000억 이상(28.0%), 1,000억 미만(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이 전체 3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0~1,000명 미만(32.0%), 300~500명 미만(23.2%), 1,000명 이상(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6] 기업체 현황 - 매출액, 규모



- 업력분포는 30년 미만 기업이 전체 3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50년 미만 기업이 28.0%, 30~40년 미만 기업이 22.4%, 50년 이상 기업이 16.8%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만한 시점을 업력 30년을 기준으로 볼 때, 30년 미만 기업은 32.8%이고, 30년 이상 기업은 67.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83.2%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서비스업은 16.8%로 조사되었다.

[그림7] 기업체 현황 - 업력, 업종 구분



[표12] 기업체 현황 빈도표

		빈도(n)	비율(%)
전체		104	100.0%
매출액	1,000억 미만	15	12.0%
	1,000~2,000억 미만	37	29.6%
	2,000~3,000억 미만	38	30.4%
	3,000억 이상	35	28.0%
규모	300명 미만	41	32.8%
	300~500명 미만	29	23.2%
	500~1,000명 미만	40	32.0%
	1,000명 이상	15	12.0%
업력	30년 미만	41	32.8%
	30~40년 미만	28	22.4%
	40~50년 미만	35	28.0%
	50년 이상	21	16.8%
업종	제조업	104	83.2%
	서비스업	21	16.8%
상장여부	상장	82	65.6%
	비상장	43	34.4%
계열사	계열사 있음	92	73.6%
유무	계열사 없음	33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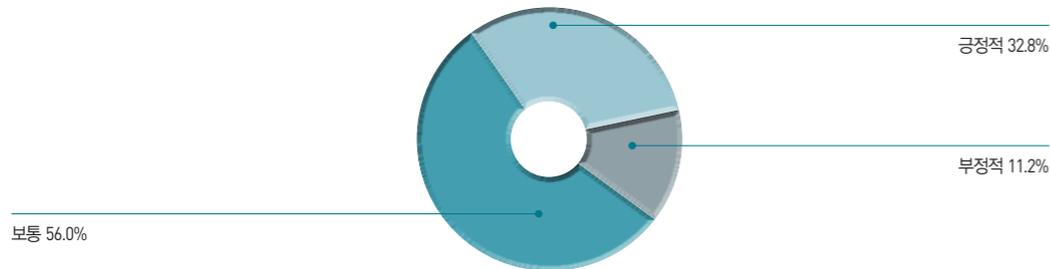
기업유형	외감	47	37.6%
	유가증권시장	45	36.0%
	코스닥시장	33	26.4%
승계유형	창업주	47	37.6%
	승계1세대	33	26.4%
	승계2세대 이상	22	17.6%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14.4%
	잘 모름	5	4.0%

2. 기업승계 인식

1) 가족 기업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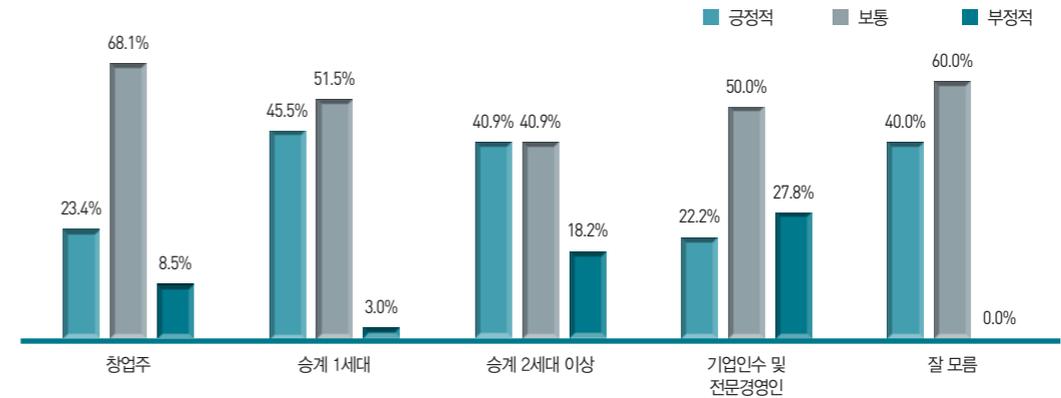
- 가족에 의한 기업 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통응답(56.0%)을 제외하고 긍정적 인식(32.8%)이 부정적 인식(11.2%)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8] 가족 기업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



-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업력별로는 30년 미만인 경우 29.3%가 긍정적, 30~40년 미만인 경우 32.1%가 긍정적, 40~50년 미만의 경우 34.3%가 긍정적, 50년 이상의 경우 38.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업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승계 유형별로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승계유형은 승계1세대(45.5%)였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승계 유형은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27.8%)로 조사되었다.

[그림9] 가족 기업 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13] 가족 기업 승계가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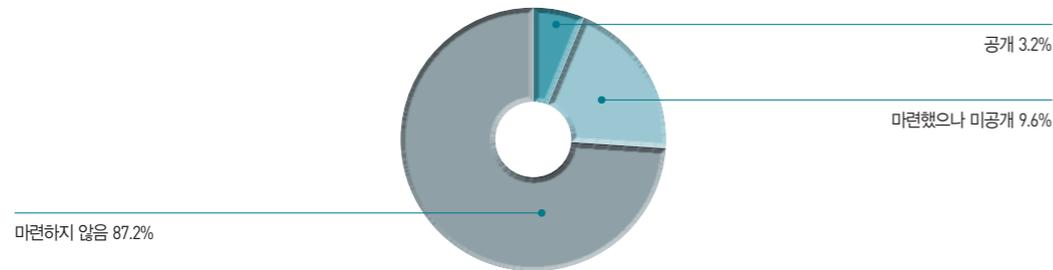
		빈도(n)	긍정적(%)	보통(%)	부정적(%)
전체		125	32.8%	56.0%	11.2%
매출액	1,000억 미만	15	20.0%	60.0%	20.0%
	1,000~2,000억 미만	37	21.6%	70.3%	8.1%
	2,000~3,000억 미만	38	34.2%	47.4%	18.4%
	3,000억 이상	35	48.6%	48.6%	2.9%
규모	300명 미만	41	24.4%	56.1%	19.5%
	300~500명 미만	29	27.6%	58.6%	13.8%
	500~1,000명 미만	40	42.5%	52.5%	5.0%
	1,000명 이상	15	40.0%	60.0%	0.0%
업력	30년 미만	41	29.3%	56.1%	14.6%
	30~40년 미만	28	32.1%	60.7%	7.1%
	40~50년 미만	35	34.3%	57.1%	8.6%
	50년 이상	21	38.1%	47.6%	14.3%
업종	제조업	104	34.6%	53.8%	11.5%
	서비스업	21	23.8%	66.7%	9.5%
상장여부	상장	82	32.9%	56.1%	11.0%
	비상장	43	32.6%	55.8%	11.6%
계열사	계열사 있음	92	35.9%	54.3%	9.8%
유무	계열사 없음	33	24.2%	60.6%	15.2%

기업유형	외감	47	34.0%	55.3%	10.6%
기업유형	유가증권시장	45	35.6%	53.3%	11.1%
	코스닥시장	33	27.3%	60.6%	12.1%
	창업주	47	23.4%	68.1%	8.5%
승계유형	승계1세대	33	45.5%	51.5%	3.0%
	승계2세대 이상	22	40.9%	40.9%	18.2%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22.2%	50.0%	27.8%
	잘 모름	5	40.0%	60.0%	0.0%

2) 기업승계 정책의 문서작성 공개여부

- 기업 승계 원칙,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승계정책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하는지에 대해 마련하지 않은 곳이 87.2%, 마련했으나 미공개가 9.6%, 공개가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승계 정책을 문서화 하는 비율(마련했으나 미공개+공개)은 12.8%로 매우 낮으며, 마련되었으나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0] 기업승계 정책 문서작성 공개여부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로는 1,000억 미만의 경우 해당하는 전체 기업이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승계 정책의 문서화시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00~3,000억 미만으로 마련했으나 미공개 15.8%, 공개 5.3%로 조사되었다.
- 규모별로 300명 미만의 경우 마련했으나 미공개 14.6%, 공개 4.9%로 문서화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업력별로는 30~40년 미만과 40~50년 미만의 경우가 문서화하는 비율이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개하는 비율은 30~40년 미만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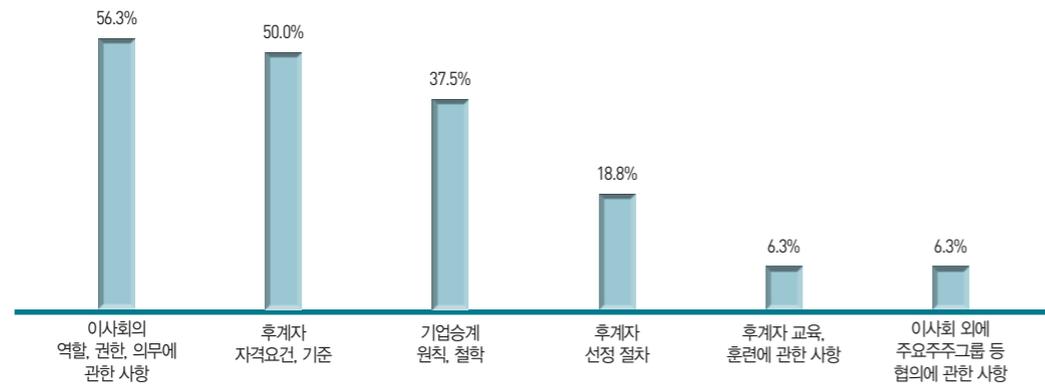
[표14] 기업승계 정책 문서작성 공개여부

		빈도(n)	마련하지 않음(%)	마련했으나 미공개(%)	공개(%)
전체		125	87.2%	9.6%	3.2%
매출액	1,000억 미만	15	100.0%	0.0%	0.0%
	1,000~2,000억 미만	37	89.2%	8.1%	2.7%
	2,000~3,000억 미만	38	78.9%	15.8%	5.3%
	3,000억 이상	35	88.6%	8.6%	2.9%
규모	300명 미만	41	80.5%	14.6%	4.9%
	300~500명 미만	29	96.6%	0.0%	3.4%
	500~1,000명 미만	40	85.0%	12.5%	2.5%
	1,000명 이상	15	93.3%	6.7%	0.0%
업력	30년 미만	41	87.8%	9.8%	2.4%
	30~40년 미만	28	85.7%	7.1%	7.1%
	40~50년 미만	35	85.7%	11.4%	2.9%
	50년 이상	21	90.5%	9.5%	0.0%
업종	제조업	104	86.5%	10.6%	2.9%
	서비스업	21	90.5%	4.8%	4.8%
상장여부	상장	82	82.9%	13.4%	3.7%
	비상장	43	95.3%	2.3%	2.3%
계열사	계열사 있음	92	84.8%	10.9%	4.3%
유무	계열사 없음	33	93.9%	6.1%	0.0%
기업유형	외감	47	91.5%	6.4%	2.1%
	유가증권시장	45	84.4%	11.1%	4.4%
	코스닥시장	33	84.8%	12.1%	3.0%
승계유형	창업주	47	89.4%	10.6%	0.0%
	승계 1세대	33	84.8%	9.1%	6.1%
	승계 2세대 이상	22	90.9%	9.1%	0.0%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83.3%	5.6%	11.1%
	잘 모름	5	80.0%	20.0%	0.0%

3) 기업 승계 정책에 포함된 사항

- 기업 승계 정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사회 역할/권한/의무에 관한 사항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후계자 자격 요건/기준(50.0%), 기업승계원칙/철학(37.5%), 후계자 선정 절차(18.8%), 후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3%), 이사회 외에 주요 주주 그룹 등 협의에 관한 사항(6.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기업 승계 정책에 포함된 사항(복수응답)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로는 1,000~2,000억 미만의 경우 이사회 역할, 권한 의무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기업 승계원칙, 철학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0~3,000억 미만의 경우 후계자 자격 요건, 기준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0억 이상의 경우 이사회 역할, 권한, 의무에 관한 사항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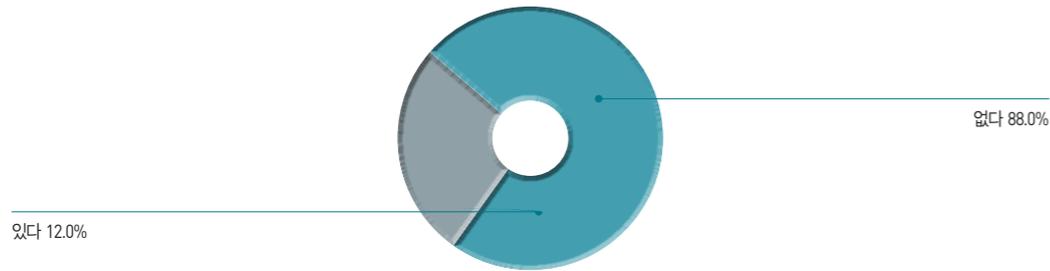
[표 15] 기업 승계 정책에 포함된 사항

		빈도(n)	이사회 역할, 권한, 의무에 관한 사항 (%)	후계자 자격요건, 기준 (%)	기업승계 원칙, 철학 (%)	후계자 선정 절차 (%)	후계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외에 주요주주 그룹 등 협의에 관한 사항 (%)
전체		16	56.3%	50.0%	37.5%	18.8%	6.3%	6.3%
매출액	1,000~2,000억 미만	4	50.0%	0.0%	50.0%	25.0%	0.0%	0.0%
	2,000~3,000억 미만	8	37.5%	75.0%	50.0%	25.0%	12.5%	12.5%
	3,000억 이상	4	100.0%	50.0%	0.0%	0.0%	0.0%	0.0%
규모	300명 미만	8	87.5%	50.0%	25.0%	12.5%	0.0%	0.0%
	300~500명 미만	1	0.0%	0.0%	100.0%	0.0%	0.0%	0.0%
	500~1,000명 미만	6	16.7%	66.7%	50.0%	33.3%	16.7%	0.0%
	1,000명 이상	1	100.0%	0.0%	0.0%	0.0%	0.0%	100.0%
업력	30년 미만	5	60.0%	40.0%	60.0%	20.0%	0.0%	0.0%
	30~40년 미만	4	50.0%	25.0%	50.0%	0.0%	25.0%	25.0%
	40~50년 미만	5	40.0%	80.0%	20.0%	40.0%	0.0%	0.0%
	50년 이상	2	100.0%	50.0%	0.0%	0.0%	0.0%	0.0%
업종	제조업	14	57.1%	57.1%	35.7%	21.4%	7.1%	0.0%
	서비스업	2	50.0%	0.0%	50.0%	0.0%	0.0%	50.0%
상장여부	상장	14	64.3%	50.0%	35.7%	14.3%	7.1%	7.1%
	비상장	2	0.0%	50.0%	50.0%	50.0%	0.0%	0.0%
계열사	계열사 있음	14	50.0%	42.9%	35.7%	21.4%	7.1%	7.1%
유무	계열사 없음	2	100.0%	100.0%	50.0%	0.0%	0.0%	0.0%
기업유형	외감	4	0.0%	75.0%	50.0%	50.0%	25.0%	0.0%
	유가증권시장	7	71.4%	57.1%	42.9%	0.0%	0.0%	0.0%
	코스닥시장	5	80.0%	20.0%	20.0%	20.0%	0.0%	20.0%
승계유형	창업주	5	60.0%	40.0%	60.0%	20.0%	20.0%	20.0%
	승계 1세대	5	40.0%	60.0%	40.0%	20.0%	0.0%	0.0%
	승계 2세대 이상	2	50.0%	50.0%	0.0%	50.0%	0.0%	0.0%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3	66.7%	33.3%	33.3%	0.0%	0.0%	0.0%
	잘 모름	1	100.0%	100.0%	0.0%	0.0%	0.0%	0.0%

4)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 의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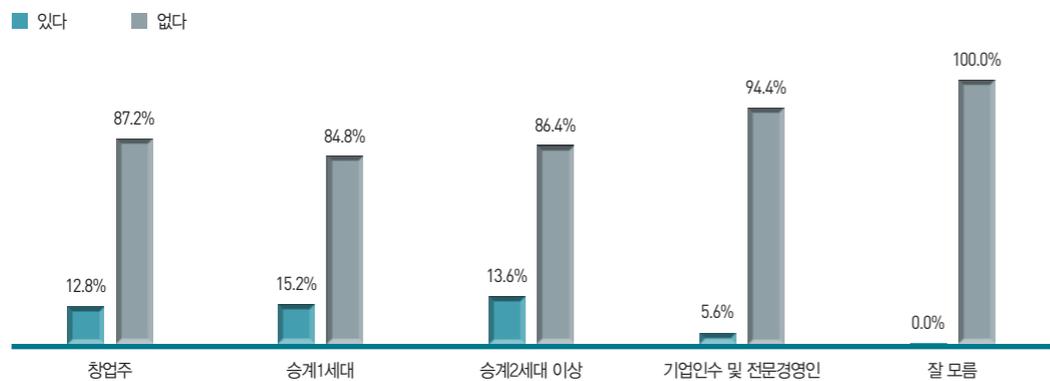
- 기업 승계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경험에 대해 있다 12.0%, 없다 88.0%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를 거쳐 결정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12]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경험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로 1,000억 미만의 경우 있다 0%, 1,000~2,000억 미만의 경우 있다 5.4%, 2,000~3,000억 미만의 경우 있다 13.2%, 3,000억 이상의 경우 있다 22.9%로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규모별로 500~1,000명 미만이 있다 25.0%로 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0~500명 미만의 경우 있다 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업력별로는 30~40년 미만의 경우 있다 21.0%로 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년 미만의 경우 있다 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승계유형에서 기업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를 거쳐 결정하는 비율이 10%대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승계유형이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경우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 의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13] 승계 유형별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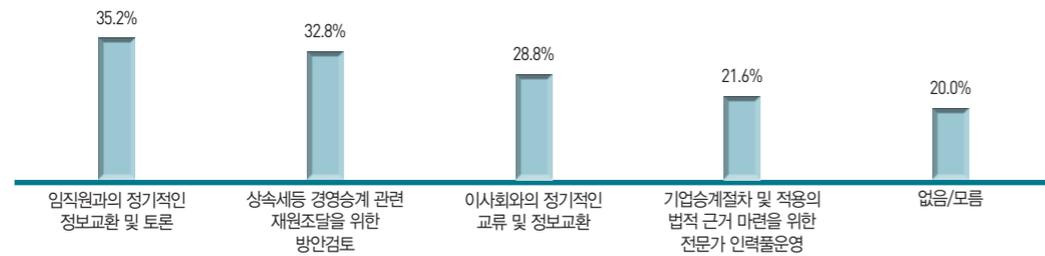
[표16] 기업승계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경험

		빈도(n)	있다(%)	없다(%)
전체		125	12.0%	88.0%
매출액	1,000억 미만	15	0.0%	100.0%
	1,000~2,000억 미만	37	5.4%	94.6%
	2,000~3,000억 미만	38	13.2%	86.8%
	3,000억 이상	35	22.9%	77.1%
규모	300명 미만	41	7.3%	92.7%
	300~500명 미만	29	0.0%	100.0%
	500~1,000명 미만	40	25.0%	75.0%
	1,000명 이상	15	13.3%	86.7%
업력	30년 미만	41	2.4%	97.6%
	30~40년 미만	28	21.4%	78.6%
	40~50년 미만	35	17.1%	82.9%
	50년 이상	21	9.5%	90.5%
업종	제조업	104	12.5%	87.5%
	서비스업	21	9.5%	90.5%
상장여부	상장	82	14.6%	85.4%
	비상장	43	7.0%	93.0%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15.2%	84.8%
	계열사 없음	33	3.0%	97.0%
기업유형	외감	47	8.5%	91.5%
	유가증권시장	45	17.8%	82.2%
	코스닥시장	33	9.1%	90.9%
승계유형	창업주	47	12.8%	87.2%
	승계 1세대	33	15.2%	84.8%
	승계 2세대 이상	22	13.6%	86.4%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5.6%	94.4%
	잘 모름	5	0.0%	100.0%

5)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활동

-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대해 임직원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토론이 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속세 등 경영승계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32.8%), 이사회와의 정기적인 교류 및 정보교환(28.8%), 기업승계 절차 및 적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인력 풀 운영(2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4]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활동(복수응답)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로는 1,000억 미만의 경우 임직원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토론과 상속세 등 경영승계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가 각 33.3%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0~2,000억 미만의 경우 임직원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토론과 이사회와의 정기적인 교류 및 정보 교환이 각 37.8%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또한 2,000~3,000억 미만의 경우에는 상속세 등 경영승계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0억 이상의 경우 임직원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토론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매출액별로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 규모별로는 500명 미만의 경우 상속세 등 경영승계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0~1,000명 미만의 경우 이사회와의 정기적인 교류 및 정보교환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명 이상의 경우 임직원과의 정기적인 정보 교환 및 토론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규모별로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 업력별로는 30년 미만의 경우 상속세 등 경영승계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40년 미만의 경우 없음/모름이 32.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또한 40~50년 미만의 경우 임직원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토론과 상속세 등 경영승계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가 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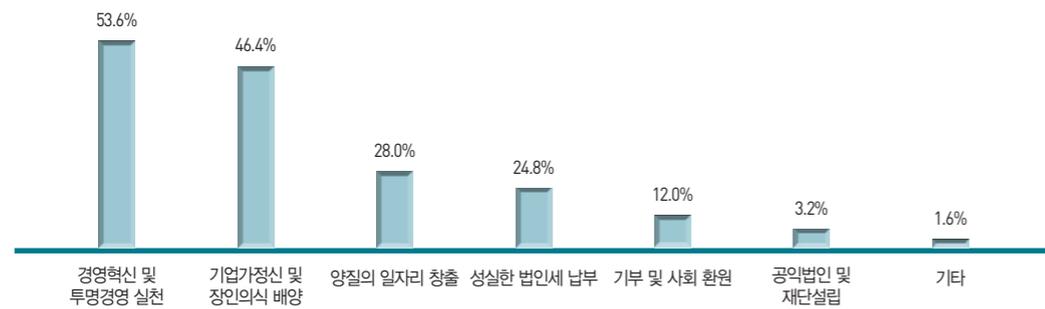
[표 17] 기업승계 정당성 제고를 위한 활동

		빈도 (n)	임직원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토론	상속세 등 경영승계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	이사회와의 정기적인 교류 및 정보교환	기업승계 절차 및 적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운영	없음/모름
전체		125	35.2%	32.8%	28.8%	21.6%	20.0%
매출액	1,000억 미만	15	33.3%	33.3%	13.3%	26.7%	26.7%
	1,000~2,000억 미만	37	37.8%	32.4%	37.8%	24.3%	16.2%
	2,000~3,000억 미만	38	36.8%	44.7%	26.3%	15.8%	15.8%
	3,000억 이상	35	31.4%	20.0%	28.6%	22.9%	25.7%
규모	300명 미만	41	26.8%	29.3%	22.0%	29.3%	24.4%
	300~500명 미만	29	34.5%	44.8%	20.7%	20.7%	13.8%
	500~1,000명 미만	40	35.0%	30.0%	37.5%	22.5%	20.0%
	1,000명 이상	15	60.0%	26.7%	40.0%	0.0%	20.0%
업력	30년 미만	41	31.7%	41.5%	29.3%	24.4%	19.5%
	30~40년 미만	28	25.0%	28.6%	25.0%	21.4%	32.1%
	40~50년 미만	35	48.6%	25.7%	37.1%	20.0%	14.3%
	50년 이상	21	33.3%	33.3%	19.0%	19.0%	14.3%
업종	제조업	104	33.7%	30.8%	29.8%	20.2%	22.1%
	서비스업	21	42.9%	42.9%	23.8%	28.6%	9.5%
상장여부	상장	82	36.6%	35.4%	34.1%	19.5%	17.1%
	비상장	43	32.6%	27.9%	18.6%	25.6%	25.6%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37.0%	32.6%	34.8%	22.8%	14.1%
	계열사 없음	33	30.3%	33.3%	12.1%	18.2%	36.4%
기업유형	외감	47	31.9%	34.0%	19.1%	27.7%	21.3%
	유기증권시장	45	42.2%	33.3%	31.1%	15.6%	11.1%
	코스닥시장	33	30.3%	30.3%	39.4%	21.2%	30.3%
승계유형	창업주	47	40.4%	29.8%	31.9%	21.3%	19.1%
	승계 1세대	33	39.4%	39.4%	24.2%	12.1%	18.2%
	승계 2세대 이상	22	31.8%	31.8%	36.4%	31.8%	9.1%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22.2%	33.3%	22.2%	27.8%	27.8%
	잘 모름	5	20.0%	20.0%	20.0%	20.0%	60.0%

6)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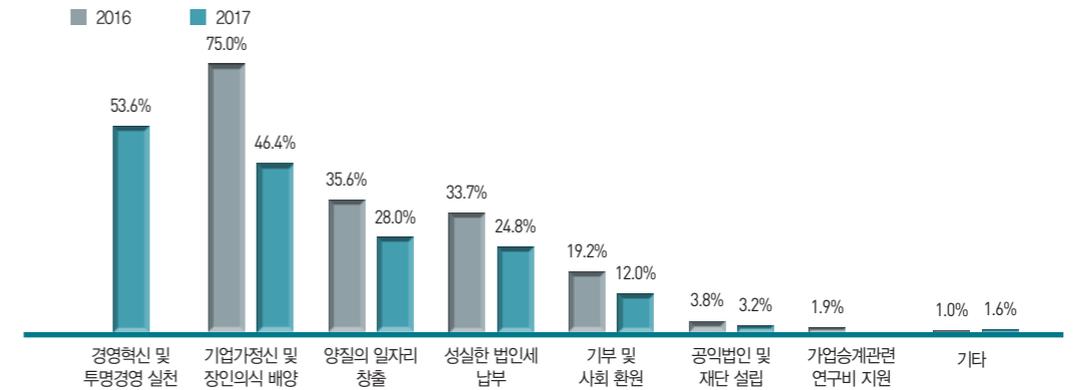
-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및 장인의식 배양(46.4%), 양질의 일자리 창출(28.0%), 성실한 법인세 납부(24.8%), 기부 및 사회 환원(12.0%), 공익법인 및 재단 설립(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15]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복수응답)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로는 300억 미만의 경우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0억 이상의 경우 기업가정신 및 장인의식 배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규모별로는 기업가정신 및 장인의식 배양이 가장 높게 나온 300~500명 미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업력별로는 기업가정신 및 장인의식 배양이 가장 높게 나온 40~50년 미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이 가장 높았으며, 위의 결과를 보아 매출액별, 규모별, 업력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 2위는 대부분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과 기업가정신 및 장인의식 배양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17년 추가된 항목(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과 삭제된 항목(기업승계 관련 연구비 지원)을 제외하면, 응답이 높은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6]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 (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표18]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

	빈도(n)	기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	기업가정신 및 장인의식 배양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실한 법인세 납부	기부 및 사회 환원	공익법인 및 재단 설립	기타	
전체	125	53.6%	46.4%	28.0%	24.8%	12.0%	3.2%	1.6%	
매출액	1,000억 미만	15	60.0%	26.7%	20.0%	33.3%	13.3%	6.7%	6.7%
	1,000~2,000억 미만	37	54.1%	40.5%	32.4%	27.0%	10.8%	2.7%	2.7%
	2,000~3,000억 미만	38	57.9%	52.6%	26.3%	18.4%	13.2%	2.6%	0.0%
	3,000억 이상	35	45.7%	54.3%	28.6%	25.7%	11.4%	2.9%	0.0%
규모	300명 미만	41	61.0%	43.9%	19.5%	24.4%	9.8%	2.4%	4.9%
	300~500명 미만	29	41.4%	48.3%	31.0%	37.9%	13.8%	6.9%	0.0%
	500~1,000명 미만	40	50.0%	47.5%	37.5%	17.5%	10.0%	2.5%	0.0%
	1,000명 이상	15	66.7%	46.7%	20.0%	20.0%	20.0%	0.0%	0.0%
업력	30년 미만	41	43.9%	34.1%	24.4%	36.6%	12.2%	4.9%	0.0%
	30~40년 미만	28	75.0%	42.9%	17.9%	10.7%	7.1%	3.6%	0.0%
	40~50년 미만	35	42.9%	57.1%	34.3%	31.4%	17.1%	2.9%	5.7%
	50년 이상	21	61.9%	57.1%	38.1%	9.5%	9.5%	0.0%	0.0%
업종	제조업	104	54.8%	43.3%	28.8%	27.9%	11.5%	2.9%	1.0%
	서비스업	21	47.6%	61.9%	23.8%	9.5%	14.3%	4.8%	4.8%
상장여부	상장	82	56.1%	45.1%	30.5%	20.7%	13.4%	3.7%	0.0%
	비상장	43	48.8%	48.8%	23.3%	32.6%	9.3%	2.3%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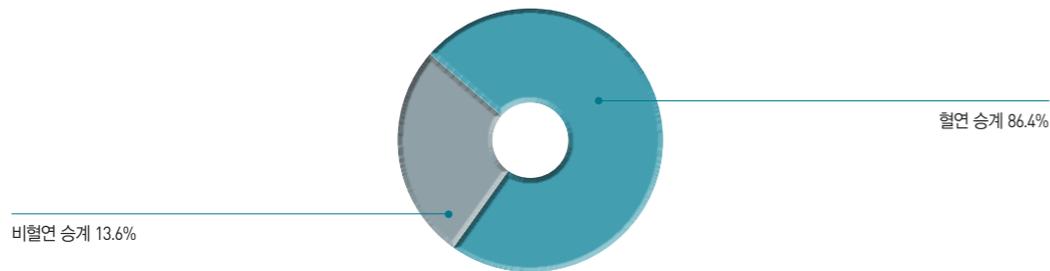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53.3%	45.7%	31.5%	26.1%	8.7%	3.3%	1.1%
	계열사 없음	33	54.5%	48.5%	18.2%	21.2%	21.2%	3.0%	3.0%
기업유형	외감	47	55.3%	44.7%	21.3%	27.7%	10.6%	2.1%	4.3%
	유기증권시장	45	60.0%	48.9%	35.6%	17.8%	8.9%	6.7%	0.0%
	코스닥시장	33	42.4%	45.5%	27.3%	30.3%	18.2%	0.0%	0.0%
승계유형	창업주	47	55.3%	38.3%	25.5%	27.7%	12.8%	2.1%	2.1%
	승계 1세대	33	63.6%	57.6%	21.2%	18.2%	9.1%	3.0%	0.0%
	승계 2세대 이상	22	50.0%	45.5%	36.4%	36.4%	27.3%	0.0%	0.0%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38.9%	44.4%	33.3%	22.2%	0.0%	5.6%	5.6%
	잘 모름	5	40.0%	60.0%	40.0%	0.0%	0.0%	20.0%	0.0%

3. 기업후계자 선정 및 역량

1)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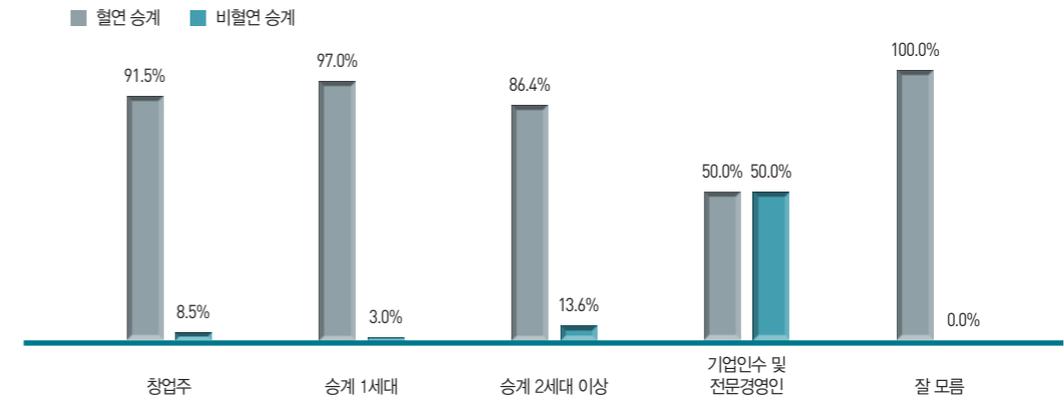
-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에 대해 혈연승계가 86.4%, 비혈연승계가 13.6%로 혈연승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17]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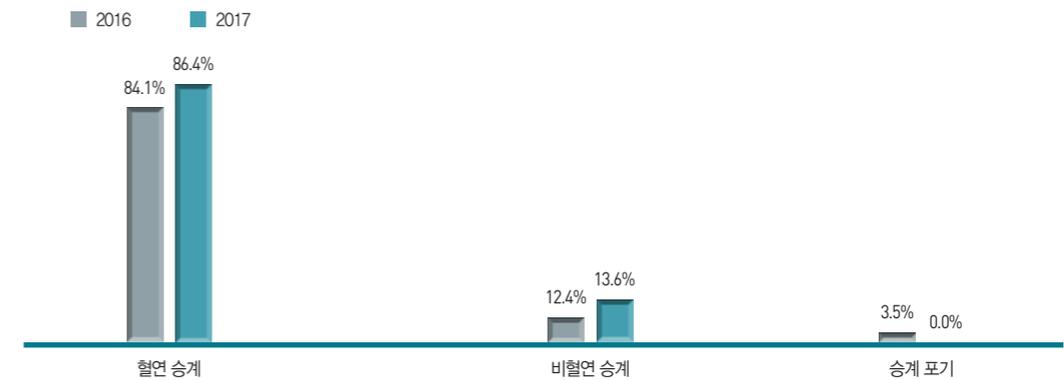
- 구체적으로 모든 경우에서 혈연승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별로 살펴봤을 때 비교적 비혈연승계에 관심이 많은 곳은 1,000억 미만의 경우로 나타났다.
-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의 경우 비교적 비혈연 승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별로는 40~50년 미만의 경우 비교적 비혈연 승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승계 유형별로는 승계1세대의 경우 혈연승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97.0%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의 경우 혈연승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5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8] 승계유형별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 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7년 조사 결과는 승계 포기 응답은 없었고, 대신 2016년에 비해 혈연승계와 비혈연 승계 선호 비율이 조금씩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9]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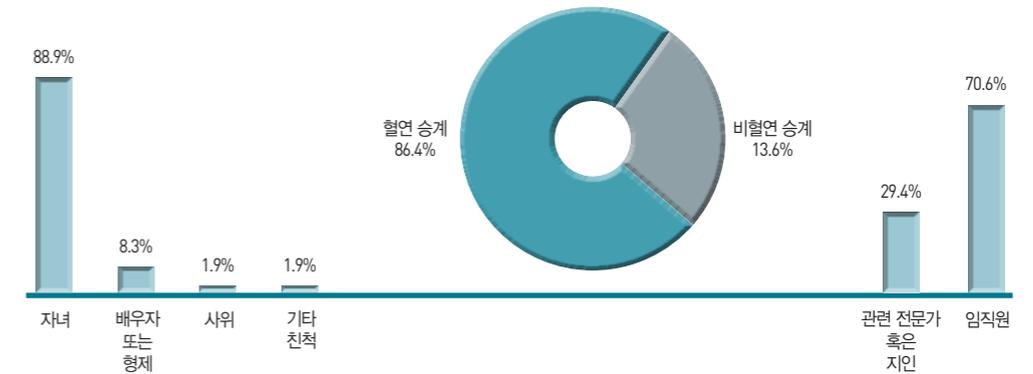
[표19]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빈도(n)	혈연승계(%)	비혈연승계(%)
전체		125	86.4%	13.6%
매출액	1,000억 미만	15	60.0%	40.0%
	1,000~2,000억 미만	37	89.2%	10.8%
	2,000~3,000억 미만	38	86.8%	13.2%
	3,000억 이상	35	94.3%	5.7%
규모	300명 미만	41	78.0%	22.0%
	300~500명 미만	29	93.1%	6.9%
	500~1,000명 미만	40	90.0%	10.0%
	1,000명 이상	15	86.7%	13.3%
업력	30년 미만	41	85.4%	14.6%
	30~40년 미만	28	92.9%	7.1%
	40~50년 미만	35	82.9%	17.1%
	50년 이상	21	85.7%	14.3%
업종	제조업	104	87.5%	12.5%
	서비스업	21	81.0%	19.0%
상장여부	상장	82	87.8%	12.2%
	비상장	43	83.7%	16.3%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88.0%	12.0%
	계열사 없음	33	81.8%	18.2%
기업유형	외감	47	83.0%	17.0%
	유가증권시장	45	86.7%	13.3%
	코스닥시장	33	90.9%	9.1%
승계유형	창업주	47	91.5%	8.5%
	승계 1세대	33	97.0%	3.0%
	승계 2세대 이상	22	86.4%	13.6%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50.0%	50.0%
	잘 모름	5	100.0%	0.0%

2) 유형별 관심 있는 기업 승계 세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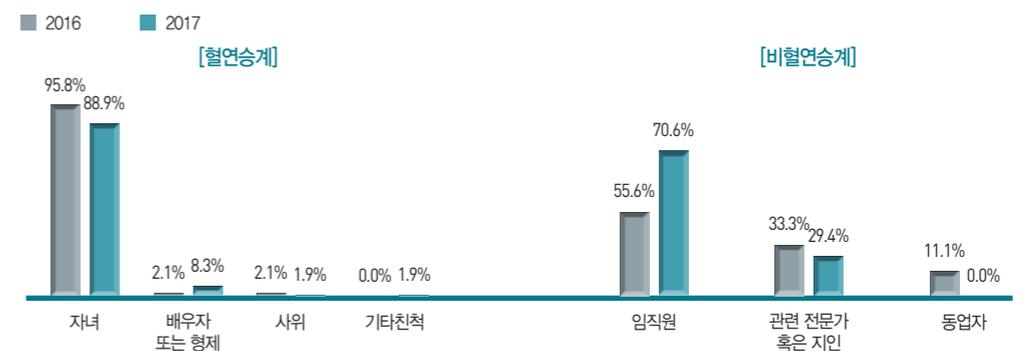
-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에 대해 혈연승계라고 답한 응답자들 중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8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또는 형제(8.3%), 사위(1.9%), 기타 친척(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혈연 승계라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 관련 전문가 혹은 지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6%, 임직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4%로 조사되었다.

[그림20]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



- 혈연승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모든 경우에는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승계 유형 중 승계 2세대 이상의 경우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다.
- 비혈연 승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혈연승계의 경우 2017년도 결과는 자녀, 사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고, 배우자 형제, 기타 친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비혈연 승계의 경우 임직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고, 관련전문가 혹은 지인, 동업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21]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표20]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혈연승계)

		빈도(n)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사위(%)	기타 친척(%)
전체		108	88.9%	8.3%	1.9%	1.9%
매출액	1,000억 미만	9	100.0%	0.0%	0.0%	0.0%
	1,000~2,000억 미만	33	84.8%	12.1%	3.0%	0.0%
	2,000~3,000억 미만	33	84.8%	6.1%	3.0%	6.1%
	3,000억 이상	33	93.9%	9.1%	0.0%	0.0%
규모	300명 미만	32	90.6%	6.3%	0.0%	6.3%
	300~500명 미만	27	85.2%	11.1%	3.7%	0.0%
	500~1,000명 미만	36	88.9%	8.3%	2.8%	0.0%
	1,000명 이상	13	92.3%	7.7%	0.0%	0.0%
업력	30년 미만	35	82.9%	14.3%	0.0%	2.9%
	30~40년 미만	26	92.3%	3.8%	0.0%	3.8%
	40~50년 미만	29	89.7%	3.4%	6.9%	0.0%
	50년 이상	18	94.4%	11.1%	0.0%	0.0%
업종	제조업	91	90.1%	8.8%	2.2%	0.0%
	서비스업	17	82.4%	5.9%	0.0%	11.8%
상장여부	상장	72	87.5%	9.7%	2.8%	1.4%
	비상장	36	91.7%	5.6%	0.0%	2.8%
계열사	계열사 있음	81	87.7%	9.9%	2.5%	1.2%
	계열사 없음	27	92.6%	3.7%	0.0%	3.7%
기업유형	외감	39	89.7%	5.1%	0.0%	5.1%
	유가증권시장	39	89.7%	7.7%	5.1%	0.0%
	코스닥시장	30	86.7%	13.3%	0.0%	0.0%
승계유형	창업주	43	83.7%	11.6%	0.0%	4.7%
	승계 1세대	32	87.5%	9.4%	6.3%	0.0%
	승계 2세대 이상	19	100.0%	0.0%	0.0%	0.0%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9	88.9%	11.1%	0.0%	0.0%
	잘 모름	5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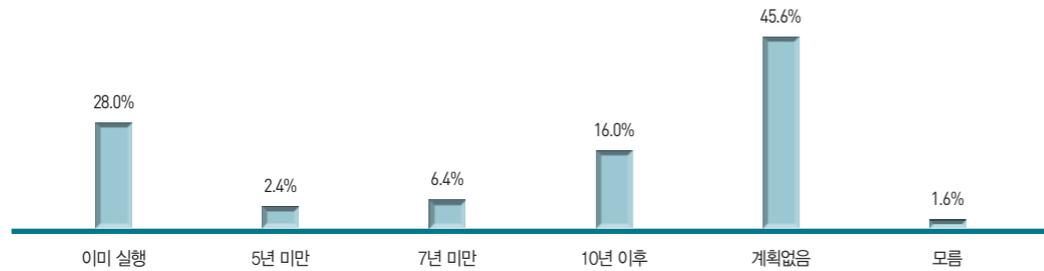
[표21] 관심 있는 기업승계 유형(비혈연승계)

		빈도(n)	임직원(%)	관련 전문가 혹은 지인(%)
전체		17	70.6%	29.4%
매출액	1,000억 미만	6	66.7%	33.3%
	1,000~2,000억 미만	4	75.0%	25.0%
	2,000~3,000억 미만	5	60.0%	40.0%
	3,000억 이상	2	100.0%	0.0%
규모	300명 미만	9	77.8%	22.2%
	300~500명 미만	2	100.0%	0.0%
	500~1,000명 미만	4	50.0%	50.0%
	1,000명 이상	2	50.0%	50.0%
업력	30년 미만	6	83.3%	16.7%
	30~40년 미만	2	0.0%	100.0%
	40~50년 미만	6	66.7%	33.3%
	50년 이상	3	100.0%	0.0%
업종	제조업	13	69.2%	30.8%
	서비스업	4	75.0%	25.0%
상장여부	상장	10	70.0%	30.0%
	비상장	7	71.4%	28.6%
계열사	계열사 있음	11	54.5%	45.5%
	계열사 없음	6	100.0%	0.0%
기업유형	외감	8	62.5%	37.5%
	유가증권시장	6	66.7%	33.3%
	코스닥시장	3	100.0%	0.0%
승계유형	창업주	4	50.0%	50.0%
	승계 1세대	1	100.0%	0.0%
	승계 2세대 이상	3	33.3%	66.7%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9	88.9%	11.1%
	잘 모름	5	100.0%	0.0%

3) 기업승계 시기 계획

- 기업체 기업승계 시기 계획에 대해 계획없음 4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미 실행(28.0%), 10년 이후(16.0%), 7년 미만(6.4%), 5년 미만(2.4%), 모름 (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2] 기업 승계 시기 계획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 업력별로는 계획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미 실행이 높게 나타났다.
-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과 1,000명 이상의 경우 계획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500명 미만과 500~1,000명 미만의 경우 이미 실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승계 유형별로는 승계 1세대와 승계 2세대 이상에서 계획 없음의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이미 실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남. 따라서 승계 1세대 이상의 경우 기업승계 시기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2] 기업 승계 시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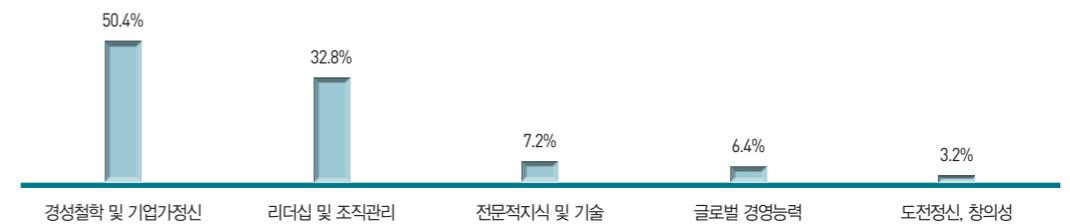
		빈도 (n)	이미 실행 (%)	5년 미만 (%)	7년 미만 (%)	10년 이후 (%)	계획 없음 (%)	모름 (%)	기타 (%)
전체		125	28.0%	2.4%	6.4%	16.0%	45.6%	1.6%	1.6%
매출액	1,000억 미만	15	26.7%	0.0%	0.0%	6.7%	66.7%	0.0%	6.7%
	1,000~2,000억 미만	37	32.4%	2.7%	5.4%	10.8%	45.9%	2.7%	2.7%
	2,000~3,000억 미만	38	23.7%	0.0%	13.2%	18.4%	42.1%	2.6%	0.0%
	3,000억 이상	35	28.6%	5.7%	2.9%	22.9%	40.0%	0.0%	0.0%
규모	300명 미만	41	9.8%	2.4%	4.9%	19.5%	63.4%	0.0%	4.9%
	300~500명 미만	29	37.9%	3.4%	10.3%	17.2%	27.6%	3.4%	0.0%
	500~1,000명 미만	40	40.0%	2.5%	7.5%	12.5%	35.0%	2.5%	0.0%
	1,000명 이상	15	26.7%	0.0%	0.0%	13.3%	60.0%	0.0%	0.0%

업력	30년 미만	41	24.4%	0.0%	9.8%	22.0%	43.9%	0.0%	0.0%
	30~40년 미만	28	25.0%	3.6%	3.6%	14.3%	50.0%	3.6%	0.0%
40~50년 미만	35	31.4%	2.9%	8.6%	8.6%	48.6%	0.0%	5.7%	
50년 이상	21	33.3%	4.8%	0.0%	19.0%	38.1%	4.8%	0.0%	
업종	제조업	104	28.8%	1.9%	6.7%	14.4%	46.2%	1.9%	1.0%
	서비스업	21	23.8%	4.8%	4.8%	23.8%	42.9%	0.0%	4.8%
상장여부	상장	82	30.5%	2.4%	7.3%	11.0%	46.3%	2.4%	0.0%
	비상장	43	23.3%	2.3%	4.7%	25.6%	44.2%	0.0%	4.7%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33.7%	3.3%	5.4%	17.4%	38.0%	2.2%	1.1%
	계열사 없음	33	12.1%	0.0%	9.1%	12.1%	66.7%	0.0%	3.0%
기업유형	외감	47	25.5%	2.1%	6.4%	23.4%	42.6%	0.0%	4.3%
	유가증권시장	45	33.3%	4.4%	4.4%	13.3%	40.0%	4.4%	0.0%
	코스닥시장	33	24.2%	0.0%	9.1%	9.1%	57.6%	0.0%	0.0%
승계유형	창업주	47	14.9%	2.1%	12.8%	19.1%	51.1%	0.0%	2.1%
	승계 1세대	33	39.4%	3.0%	0.0%	15.2%	39.4%	3.0%	0.0%
	승계 2세대 이상	22	40.9%	4.5%	0.0%	13.6%	36.4%	4.5%	0.0%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22.2%	0.0%	11.1%	5.6%	61.1%	0.0%	5.6%
	잘 모름	5	40.0%	0.0%	0.0%	40.0%	20.0%	0.0%	0.0%

4) 후계자 자질

-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 경영철학 및 기업가 정신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더십 및 조직 관리(32.8%), 전문적 지식 및 기술(7.2%), 글로벌 경영 능력(6.4%), 도전정신, 창의성(3.2%)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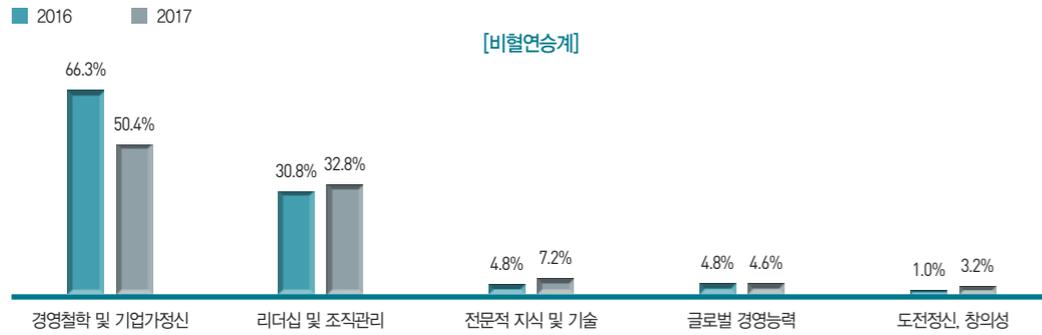
[그림23] 후계자 자질(복수 응답)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 규모별, 업력별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영철학 및 기업가 정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리더십 및 조직관리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경영철학 및 기업가 정신의 응답비율은 감소하고 그 외 항목의 응답비율은 증가했다.

[그림24] 후계자 자질(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표23] 후계자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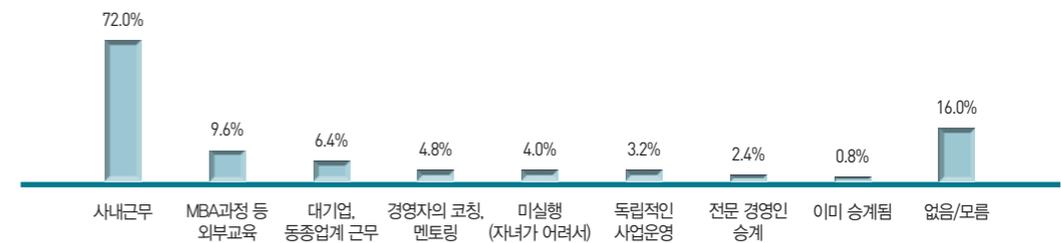
		빈도(n)	경영철학 및 기업가 정신 (%)	리더십 및 조직관리 (%)	전문적 지식 및 기술 (%)	글로벌 경영능력 (%)	도전정신, 창의성 (%)
전체		125	50.4%	32.8%	7.2%	6.4%	3.2%
매출액	1,000억 미만	15	53.3%	20.0%	6.7%	20.0%	0.0%
	1,000~2,000억 미만	37	51.4%	32.4%	5.4%	2.7%	8.1%
	2,000~3,000억 미만	38	44.7%	44.7%	5.3%	2.6%	2.6%
	3,000억 이상	35	54.3%	25.7%	11.4%	8.6%	0.0%
규모	300명 미만	41	53.7%	26.8%	2.4%	9.8%	7.3%
	300~500명 미만	29	55.2%	41.4%	3.4%	0.0%	0.0%
	500~1,000명 미만	40	35.0%	37.5%	17.5%	7.5%	2.5%
	1,000명 이상	15	73.3%	20.0%	0.0%	6.7%	0.0%
업력	30년 미만	41	51.2%	39.0%	2.4%	4.9%	2.4%
	30~40년 미만	28	50.0%	25.0%	17.9%	7.1%	0.0%
	40~50년 미만	35	48.6%	34.3%	5.7%	5.7%	5.7%
	50년 이상	21	52.4%	28.6%	4.8%	9.5%	4.8%
업종	제조업	104	50.0%	31.7%	8.7%	6.7%	2.9%
	서비스업	21	52.4%	38.1%	0.0%	4.8%	4.8%
상장여부	상장	82	54.9%	31.7%	8.5%	3.7%	1.2%
	비상장	43	41.9%	34.9%	4.7%	11.6%	7.0%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53.3%	30.4%	6.5%	7.6%	2.2%
	계열사 없음	33	42.4%	39.4%	9.1%	3.0%	6.1%
기업유형	외감	47	44.7%	31.9%	4.3%	12.8%	6.4%
	유가증권시장	45	60.0%	26.7%	6.7%	4.4%	2.2%
	코스닥시장	33	45.5%	42.4%	12.1%	0.0%	0.0%
승계유형	창업주	47	44.7%	31.9%	6.4%	12.8%	4.3%
	승계 1세대	33	60.6%	27.3%	9.1%	3.0%	0.0%
	승계 2세대 이상	22	59.1%	36.4%	0.0%	0.0%	4.5%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50.0%	33.3%	5.6%	5.6%	5.6%
	잘 모름	5	0.0%	60.0%	40.0%	0.0%	0.0%

5) 후계자 양성 방안

- 후계자 양성방안에 대해 사내근무라고 7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MBA 과정 등 외부 교육(9.6%), 대기업, 동종업계 근무(6.4%), 경영자의 코칭, 멘토링(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25] 후계자 양성 방안 (기존 그림 24 그림 이름 변경)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 규모별, 업력별 모든 경우에서 사내근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내근무를 함으로써 실무를 익힘과 동시에 기업의 특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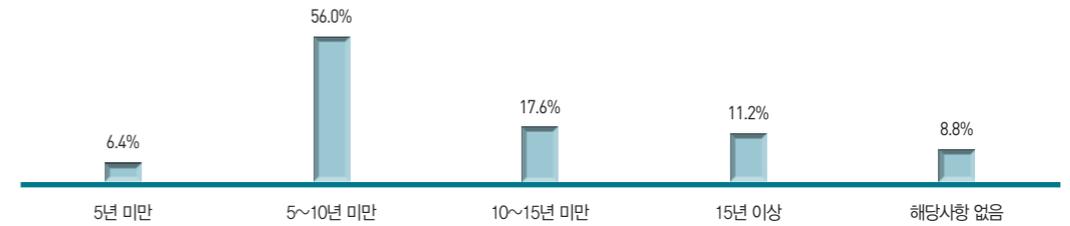
[표24] 후계자 양성 방안

		빈도 (n)	사내 근무 (%)	MBA 과정 등 외부교육 (%)	대기업 등중견기업 근무 (%)	경영자의 코칭, 멘토링 (%)	미실행 (%)	독립적인 사업운영 (%)	전문 경영인 승계 (%)	이미 승계됨 (%)	없음/모름 (%)
전체		125	72.0%	9.6%	6.4%	4.8%	4.0%	3.2%	2.4%	0.8%	16.0%
매출액	1,000억 미만	15	60.0%	6.7%	6.7%	6.7%	6.7%	6.7%	6.7%	0.0%	13.3%
	1,000~2,000억 미만	37	64.9%	2.7%	2.7%	5.4%	8.1%	0.0%	2.7%	0.0%	24.3%
	2,000~3,000억 미만	38	78.9%	13.2%	5.3%	2.6%	0.0%	0.0%	0.0%	2.6%	15.8%
	3,000억 이상	35	77.1%	14.3%	11.4%	5.7%	2.9%	8.6%	2.9%	0.0%	8.6%
규모	300명 미만	41	68.3%	12.2%	2.4%	4.9%	4.9%	4.9%	4.9%	0.0%	14.6%
	300~500명 미만	29	82.8%	6.9%	6.9%	13.8%	0.0%	0.0%	0.0%	0.0%	17.2%
	500~1,000명 미만	40	65.0%	7.5%	7.5%	0.0%	7.5%	5.0%	2.5%	2.5%	17.5%
	1,000명 이상	15	80.0%	13.3%	13.3%	0.0%	0.0%	0.0%	0.0%	0.0%	13.3%
업력	30년 미만	41	70.7%	7.3%	0.0%	4.9%	4.9%	4.9%	4.9%	0.0%	17.1%
	30~40년 미만	28	75.0%	7.1%	7.1%	3.6%	3.6%	3.6%	0.0%	0.0%	14.3%
	40~50년 미만	35	65.7%	14.3%	17.1%	8.6%	5.7%	0.0%	2.9%	2.9%	14.3%
	50년 이상	21	81.0%	9.5%	0.0%	0.0%	0.0%	4.8%	0.0%	0.0%	19.0%
업종	제조업	104	73.1%	9.6%	6.7%	4.8%	3.8%	3.8%	1.9%	1.0%	15.4%
	서비스업	21	66.7%	9.5%	4.8%	4.8%	4.8%	0.0%	4.8%	0.0%	19.0%
상장	상장	82	73.2%	11.0%	4.9%	2.4%	3.7%	1.2%	2.4%	1.2%	17.1%
여부	비상장	43	69.8%	7.0%	9.3%	9.3%	4.7%	7.0%	2.3%	0.0%	14.0%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72.8%	12.0%	7.6%	4.3%	5.4%	2.2%	1.1%	1.1%	15.2%
	계열사 없음	33	69.7%	3.0%	3.0%	6.1%	0.0%	6.1%	6.1%	0.0%	18.2%
기업	외감	47	70.2%	10.6%	8.5%	8.5%	4.3%	4.3%	2.1%	2.1%	12.8%
유형	유가증권시장	45	80.0%	6.7%	4.4%	2.2%	2.2%	2.2%	0.0%	0.0%	17.8%
	코스닥시장	33	63.6%	12.1%	6.1%	3.0%	6.1%	3.0%	6.1%	0.0%	18.2%
승계	창업주	47	83.0%	10.6%	4.3%	2.1%	2.1%	4.3%	2.1%	0.0%	8.5%
유형	승계 1세대	33	69.7%	9.1%	6.1%	12.1%	3.0%	3.0%	0.0%	0.0%	18.2%
	승계 2세대 이상	22	72.7%	13.6%	13.6%	4.5%	13.6%	4.5%	0.0%	4.5%	9.1%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50.0%	0.0%	5.6%	0.0%	0.0%	0.0%	11.1%	0.0%	33.3%
	잘 모름	5	60.0%	20.0%	0.0%	0.0%	0.0%	0.0%	0.0%	0.0%	40.0%

6)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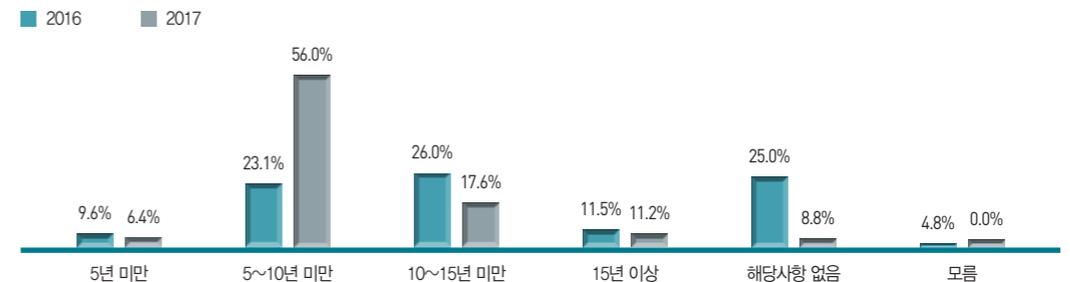
-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에 대해 5년~10년 미만이 5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5년 미만(17.6%), 15년 이상(11.2%), 5년 미만(6.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26] 후계자 경영 수업 기간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 규모별, 업력별 모든 경우에서 5~10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으로 5~10년 미만을 가장 적절한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더불어 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5~10년 미만의 응답비율은 대폭 증가되었고, 나머지 항목들의 응답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이는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으로 5~10년 미만을 가장 적절한 기간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림27]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표25] 후계자 경영수업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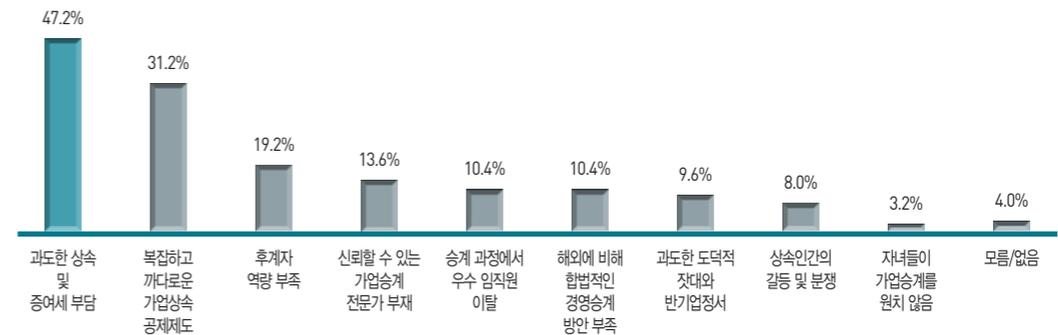
		빈도(n)	5년 미만 (%)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해당사항 없음(%)	이미 승계됨 (%)	없음/모름 (%)
전체		125	6.40%	56.00%	17.60%	11.20%	8.80%	0.8%	16.0%
매출액	1,000억 미만	15	0.00%	60.00%	6.70%	6.70%	26.70%	0.0%	13.3%
	1,000~2,000억 미만	37	5.40%	64.90%	13.50%	2.70%	13.50%	0.0%	24.3%
	2,000~3,000억 미만	38	7.90%	52.60%	23.70%	13.20%	2.60%	2.6%	15.8%
	3,000억 이상	35	8.60%	48.60%	20.00%	20.00%	2.90%	0.0%	8.6%
규모	300명 미만	41	4.90%	68.30%	4.90%	9.80%	12.20%	0.0%	14.6%
	300~500명 미만	29	3.40%	44.80%	31.00%	10.30%	10.30%	0.0%	17.2%
	500~1,000명 미만	40	12.50%	55.00%	25.00%	5.00%	2.50%	2.5%	17.5%
	1,000명 이상	15	0.00%	46.70%	6.70%	33.30%	13.30%	0.0%	13.3%
업력	30년 미만	41	7.30%	61.00%	14.60%	7.30%	9.80%	0.0%	17.1%
	30~40년 미만	28	7.10%	64.30%	14.30%	10.70%	3.60%	0.0%	14.3%
	40~50년 미만	35	5.70%	51.40%	17.10%	11.40%	14.30%	2.9%	14.3%
	50년 이상	21	4.80%	42.90%	28.60%	19.00%	4.80%	0.0%	19.0%
업종	제조업	104	5.80%	56.70%	18.30%	10.60%	8.70%	1.0%	15.4%
	서비스업	21	9.50%	52.40%	14.30%	14.30%	9.50%	0.0%	19.0%
상장여부	상장	82	4.90%	58.50%	17.10%	11.00%	8.50%	1.2%	17.1%
	비상장	43	9.30%	51.20%	18.60%	11.60%	9.30%	0.0%	14.0%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7.60%	55.40%	18.50%	9.80%	8.70%	1.1%	15.2%
	계열사 없음	33	3.00%	57.60%	15.20%	15.20%	9.10%	0.0%	18.2%
기업유형	외감	47	8.50%	53.20%	19.10%	12.80%	6.40%	2.1%	12.8%
	유가증권시장	45	6.70%	53.30%	17.80%	8.90%	13.30%	0.0%	17.8%
	코스닥시장	33	3.00%	63.60%	15.20%	12.10%	6.10%	0.0%	18.2%
승계유형	창업주	47	6.40%	59.60%	12.80%	10.60%	10.60%	0.0%	8.5%
	승계 1세대	33	12.10%	36.40%	30.30%	12.10%	9.10%	0.0%	18.2%
	승계 2세대 이상	22	0.00%	81.80%	9.10%	9.10%	0.00%	4.5%	9.1%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5.60%	44.40%	16.70%	16.70%	16.70%	0.0%	33.3%
	잘 모름	5	0.00%	80.00%	20.00%	0.00%	0.00%	0.0%	40.0%

4. 기업승계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1) 기업승계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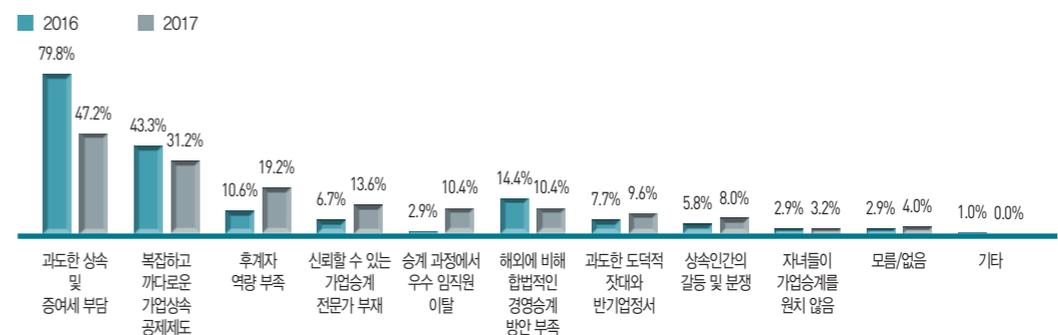
- 기업승계 애로사항에 대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4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신뢰할 수 있는 기업승계 전문가 부재(13.6%), 승계과정에서 우수 임직원 이탈(10.4%)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28] 기업승계 애로사항(복수 응답)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 규모별, 업력별 모든 경우에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기업승계에 주된 애로 사항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더불어 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두 항목(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제도)은 동일하지만, 두 항목의 응답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고 나머지 항목의 응답 비율은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순서에 다소 변동이 존재함. 2016년에 이어 2017년 역시 기업승계 애로 사항으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28] 기업승계 애로사항(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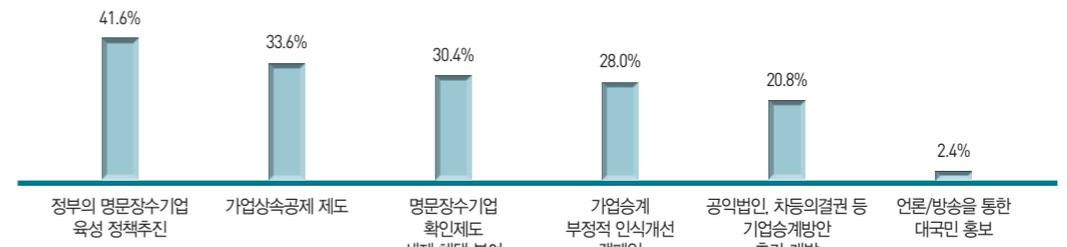
[표26] 기업승계 애로사항

		빈도 (n)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부담 과다로운 기업상속 공제 제도	후계자 역량 부족	신뢰 가능한 기업승계 전문가 부재	승계 과정 우수 임직원 이탈	해외에 비해 경영승계 방안 부족	도덕적 차별과 반기업 정서	상속 인간의 갈등 및 분쟁	자녀들이 기업승계 원치 않음	모름/ 없음
전체		125	47.2%	31.2%	19.2%	13.6%	10.4%	10.4%	9.6%	8.0%	3.2%	4.0%
매출액	1,000억 미만	15	53.3%	33.3%	13.3%	0.0%	20.0%	13.3%	6.7%	13.3%	0.0%	6.7%
	1,000~2,000억 미만	37	51.4%	18.9%	18.9%	27.0%	10.8%	2.7%	8.1%	5.4%	2.7%	2.7%
	2,000~3,000억 미만	38	50.0%	36.8%	26.3%	10.5%	13.2%	18.4%	7.9%	5.3%	0.0%	0.0%
	3,000억 이상	35	37.1%	37.1%	14.3%	8.6%	2.9%	8.6%	14.3%	11.4%	8.6%	8.6%
규모	300명 미만	41	58.5%	39.0%	7.3%	9.8%	14.6%	7.3%	7.3%	4.9%	0.0%	7.3%
	300~500명 미만	29	44.8%	17.2%	24.1%	20.7%	6.9%	13.8%	10.3%	6.9%	10.3%	0.0%
	500~1,000명 미만	40	42.5%	35.0%	25.0%	15.0%	12.5%	7.5%	2.5%	5.0%	2.5%	2.5%
	1,000명 이상	15	33.3%	26.7%	26.7%	6.7%	0.0%	20.0%	33.3%	26.7%	0.0%	6.7%
업력	30년 미만	41	51.2%	26.8%	31.7%	14.6%	9.8%	12.2%	2.4%	4.9%	2.4%	0.0%
	30~40년 미만	28	50.0%	39.3%	10.7%	14.3%	10.7%	14.3%	7.1%	3.6%	7.1%	3.6%
	40~50년 미만	35	34.3%	28.6%	14.3%	14.3%	14.3%	5.7%	17.1%	14.3%	2.9%	5.7%
	50년 이상	21	57.1%	33.3%	14.3%	9.5%	4.8%	9.5%	14.3%	9.5%	0.0%	9.5%
업종	제조업	104	46.2%	31.7%	19.2%	14.4%	9.6%	9.6%	7.7%	9.6%	3.8%	3.8%
	서비스업	21	52.4%	28.6%	19.0%	9.5%	14.3%	14.3%	19.0%	0.0%	0.0%	4.8%
상장여부	상장	82	46.3%	31.7%	25.6%	8.5%	7.3%	12.2%	11.0%	11.0%	4.9%	4.9%
	비상장	43	48.8%	30.2%	7.0%	23.3%	16.3%	7.0%	7.0%	2.3%	0.0%	2.3%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45.7%	25.0%	21.7%	13.0%	12.0%	10.9%	9.8%	5.4%	4.3%	4.3%
	계열사 없음	33	51.5%	48.5%	12.1%	15.2%	6.1%	9.1%	9.1%	15.2%	0.0%	3.0%
기업유형	외감	47	48.9%	31.9%	10.6%	25.5%	12.8%	10.6%	8.5%	0.0%	0.0%	2.1%
	유가증권시장	45	48.9%	24.4%	15.6%	8.9%	8.9%	8.9%	11.1%	11.1%	4.4%	6.7%
	코스닥시장	33	42.4%	39.4%	36.4%	3.0%	9.1%	12.1%	9.1%	15.2%	6.1%	3.0%
승계유형	창업주	47	57.4%	29.8%	23.4%	17.0%	8.5%	14.9%	8.5%	4.3%	4.3%	0.0%
	승계 1세대	33	54.5%	33.3%	6.1%	18.2%	9.1%	12.1%	6.1%	6.1%	0.0%	3.0%
	승계 2세대 이상	22	36.4%	27.3%	22.7%	4.5%	9.1%	4.5%	18.2%	13.6%	4.5%	4.5%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27.8%	27.8%	27.8%	11.1%	22.2%	5.6%	5.6%	16.7%	0.0%	11.1%
	잘 모름	5	20.0%	60.0%	20.0%	0.0%	0.0%	0.0%	20.0%	0.0%	20.0%	20.0%

2) 명문장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명문장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부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 추진이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상속공제 제도 개선(33.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세제 혜택 부여(30.4%), 기업승계 부정적 인식개선 캠페인(28.0%), 공익법인, 차등의결권 등 기업승계 방안 추가 개발(20.8%), 언론/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2.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0] 명문장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로는 2,000억 미만의 경우 기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0억 이상의 경우 정부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 추진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업력별로는 50년 미만의 경우 정부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 추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년 이상의 경우 기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27] 명문장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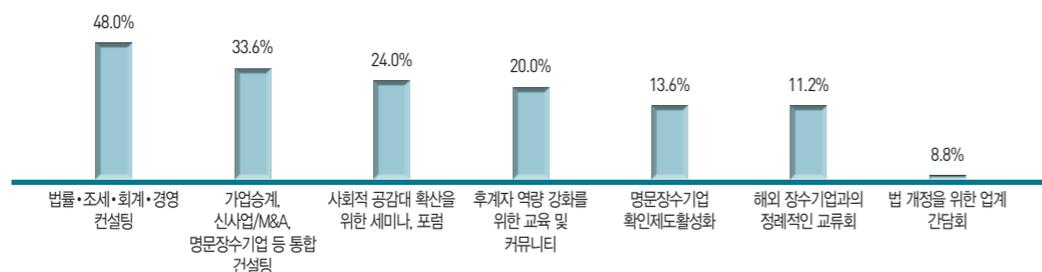
		빈도(n)	정부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 추진 (%)	기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세제 혜택 부여 (%)	기업승계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 (%)	공익법인, 차등의결권 등 기업승계방안 추가 개발 (%)	언론/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 (%)
전체		125	41.6%	33.6%	30.4%	28.0%	20.8%	2.4%
매출액	1,000억 미만	15	26.7%	33.3%	33.3%	13.3%	33.3%	0.0%
	1,000~2,000억 미만	37	37.8%	40.5%	32.4%	24.3%	21.6%	5.4%
	2,000~3,000억 미만	38	52.6%	21.1%	31.6%	31.6%	18.4%	2.6%
	3,000억 이상	35	40.0%	40.0%	25.7%	34.3%	17.1%	0.0%
규모	300명 미만	41	36.6%	34.1%	29.3%	26.8%	26.8%	0.0%
	300~500명 미만	29	44.8%	41.4%	34.5%	27.6%	17.2%	0.0%
	500~1,000명 미만	40	47.5%	30.0%	37.5%	30.0%	12.5%	5.0%
	1,000명 이상	15	33.3%	26.7%	6.7%	26.7%	33.3%	6.7%

업력	30년 미만	41	36.6%	36.6%	29.3%	17.1%	24.4%	4.9%
	30~40년 미만	28	50.0%	25.0%	28.6%	35.7%	17.9%	0.0%
	40~50년 미만	35	45.7%	34.3%	34.3%	20.0%	25.7%	0.0%
	50년 이상	21	33.3%	38.1%	28.6%	52.4%	9.5%	4.8%
업종	제조업	104	42.3%	34.6%	31.7%	26.9%	21.2%	1.9%
	서비스업	21	38.1%	28.6%	23.8%	33.3%	19.0%	4.8%
상장여부	상장	82	42.7%	32.9%	31.7%	28.0%	18.3%	3.7%
	비상장	43	39.5%	34.9%	27.9%	27.9%	25.6%	0.0%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42.4%	32.6%	29.3%	34.8%	19.6%	3.3%
	계열사 없음	33	39.4%	36.4%	33.3%	9.1%	24.2%	0.0%
기업유형	외감	47	40.4%	36.2%	29.8%	25.5%	27.7%	0.0%
	유가증권시장	45	42.2%	33.3%	26.7%	35.6%	20.0%	2.2%
	코스닥시장	33	42.4%	30.3%	36.4%	21.2%	12.1%	6.1%
	잘 모름	5	20.0%	40.0%	20.0%	20.0%	20.0%	0.0%
승계유형	창업주	47	46.8%	21.3%	34.0%	29.8%	25.5%	2.1%
	승계 1세대	33	42.4%	51.5%	30.3%	27.3%	18.2%	6.1%
	승계 2세대 이상	22	36.4%	31.8%	36.4%	18.2%	22.7%	0.0%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38.9%	33.3%	16.7%	38.9%	11.1%	0.0%
	잘 모름	5	20.0%	40.0%	20.0%	20.0%	20.0%	0.0%

3)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 및 지원기관 추진 사업

•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 및 지원기관 추진 사업에 대해 법률, 조세, 회계, 경영 컨설팅 지원이 4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승계, 신사업/M&A, 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포럼(24.0%),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20.0%),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활성화(13.6%), 해외 장수기업과의 정례적인 교류회(11.2%), 법 개정을 위한 업계 간담회(8.8%)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1]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 및 지원기관 추진 사업



• 체적으로 매출액별, 규모별, 업력별 대부분의 경우에서 법률, 조세, 회계, 경영 컨설팅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앞서 조사한 기업승계 애로사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자 함을 추측할 수 있다.

[표28]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 및 지원기관 추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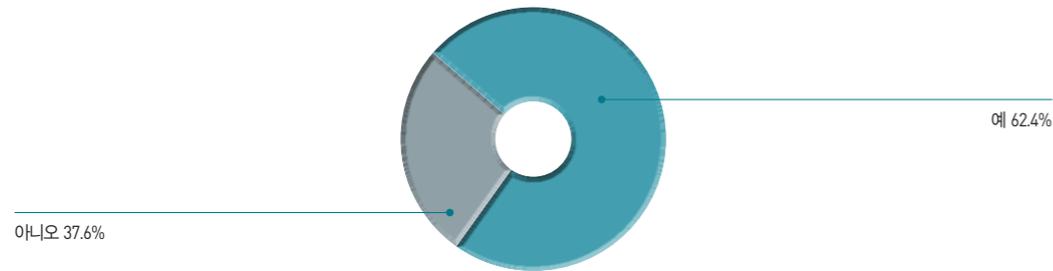
구분	상세구분	빈도 (n)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	기업승계, 신사업/M&A, 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 (%)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포럼 (%)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활성화 (%)	해외 장수기업과의 정례적인 교류회 (%)	법 개정을 위한 업계 간담회 (%)
매출액	1,000억 미만	15	66.7%	46.7%	20.0%	0.0%	6.7%	6.7%	6.7%
	1,000~2,000억 미만	37	48.6%	37.8%	32.4%	21.6%	10.8%	16.2%	5.4%
	2,000~3,000억 미만	38	42.1%	34.2%	18.4%	23.7%	18.4%	7.9%	7.9%
	3,000억 이상	35	45.7%	22.9%	22.9%	22.9%	14.3%	11.4%	14.3%
규모	300명 미만	41	43.9%	34.1%	29.3%	9.8%	17.1%	14.6%	7.3%
	300~500명 미만	29	41.4%	51.7%	17.2%	20.7%	6.9%	10.3%	24.1%
	500~1,000명 미만	40	57.5%	27.5%	22.5%	15.0%	20.0%	10.0%	2.5%
	1,000명 이상	15	46.7%	13.3%	26.7%	60.0%	0.0%	6.7%	0.0%
업력	30년 미만	41	56.1%	31.7%	17.1%	19.5%	12.2%	12.2%	9.8%
	30~40년 미만	28	35.7%	35.7%	35.7%	21.4%	10.7%	7.1%	3.6%
	40~50년 미만	35	54.3%	31.4%	17.1%	17.1%	17.1%	11.4%	14.3%
	50년 이상	21	38.1%	38.1%	33.3%	23.8%	14.3%	14.3%	4.8%
업종	제조업	104	53.8%	31.7%	24.0%	20.2%	13.5%	12.5%	6.7%
	서비스업	21	19.0%	42.9%	23.8%	19.0%	14.3%	4.8%	19.0%
상장여부	상장	82	50.0%	32.9%	19.5%	24.4%	14.6%	13.4%	9.8%
	비상장	43	44.2%	34.9%	32.6%	11.6%	11.6%	7.0%	7.0%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50.0%	30.4%	25.0%	19.6%	13.0%	15.2%	9.8%
	계열사 없음	33	42.4%	42.4%	21.2%	21.2%	15.2%	0.0%	6.1%
기업유형	외감	47	44.7%	40.4%	29.8%	10.6%	14.9%	8.5%	6.4%
	유가증권시장	45	46.7%	24.4%	22.2%	26.7%	17.8%	15.6%	15.6%
	코스닥시장	33	54.5%	36.4%	18.2%	24.2%	6.1%	9.1%	3.0%

승계유형	창업주	47	51.1%	31.9%	21.3%	27.7%	12.8%	10.6%	4.3%
	승계 1세대	33	48.5%	33.3%	30.3%	9.1%	18.2%	6.1%	12.1%
	승계 2세대 이상	22	50.0%	40.9%	22.7%	31.8%	9.1%	13.6%	9.1%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44.4%	27.8%	27.8%	5.6%	5.6%	16.7%	16.7%
	잘 모름	5	20.0%	40.0%	0.0%	20.0%	40.0%	20.0%	0.0%

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의사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의사에 대해 예 62.4%, 아니오 37.6%로 나타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의사가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의사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신청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는 500~1,000명 미만의 경우 신청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별로는 30년 미만의 경우 신청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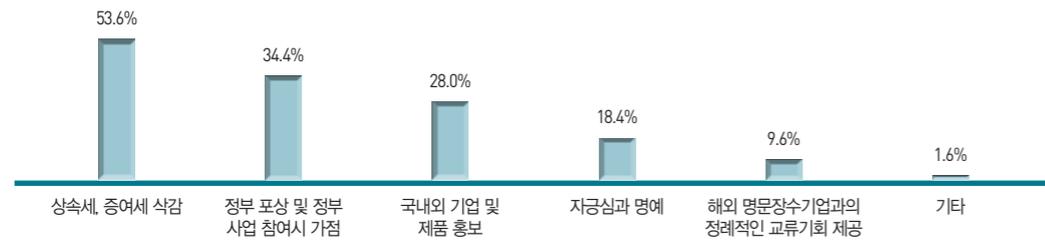
[표29]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의사

		빈도(n)	예(%)	아니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활성화 (%)	해외 장수기업 과의 정례적인 교류회 (%)	법 개정을 위한 업계 간담회 (%)
전체		125	62.4%	37.6%	13.6%	11.2%	8.8%
매출액	1,000억 미만	15	46.7%	53.3%	6.7%	6.7%	6.7%
	1,000~2,000억 미만	37	59.5%	40.5%	10.8%	16.2%	5.4%
	2,000~3,000억 미만	38	63.2%	36.8%	18.4%	7.9%	7.9%
	3,000억 이상	35	71.4%	28.6%	14.3%	11.4%	14.3%
규모	300명 미만	41	58.5%	41.5%	17.1%	14.6%	7.3%
	300~500명 미만	29	58.6%	41.4%	6.9%	10.3%	24.1%
	500~1,000명 미만	40	72.5%	27.5%	20.0%	10.0%	2.5%
	1,000명 이상	15	53.3%	46.7%	0.0%	6.7%	0.0%
업력	30년 미만	41	73.2%	26.8%	12.2%	12.2%	9.8%
	30~40년 미만	28	57.1%	42.9%	10.7%	7.1%	3.6%
	40~50년 미만	35	54.3%	45.7%	17.1%	11.4%	14.3%
	50년 이상	21	61.9%	38.1%	14.3%	14.3%	4.8%
업종	제조업	104	65.4%	34.6%	13.5%	12.5%	6.7%
	서비스업	21	47.6%	52.4%	14.3%	4.8%	19.0%
상장여부	상장	82	61.0%	39.0%	14.6%	13.4%	9.8%
	비상장	43	65.1%	34.9%	11.6%	7.0%	7.0%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60.9%	39.1%	13.0%	15.2%	9.8%
	계열사 없음	33	66.7%	33.3%	15.2%	0.0%	6.1%
기업유형	외감	47	61.7%	38.3%	14.9%	8.5%	6.4%
	유가증권시장	45	60.0%	40.0%	17.8%	15.6%	15.6%
	코스닥시장	33	66.7%	33.3%	6.1%	9.1%	3.0%
승계유형	창업주	47	68.1%	31.9%	12.8%	10.6%	4.3%
	승계 1세대	33	54.5%	45.5%	18.2%	6.1%	12.1%
	승계 2세대 이상	22	63.6%	36.4%	9.1%	13.6%	9.1%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61.1%	38.9%	5.6%	16.7%	16.7%
	잘 모름	5	60.0%	40.0%	40.0%	20.0%	0.0%

5)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기업 혜택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기업 혜택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삭감 53.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부 포상 및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34.4%), 국내외 기업 및 제품 홍보(28.0%), 자금심과 명예(18.4%), 해외 명문장수기업과의 정례적인 교류기회 제공(9.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3]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기업 혜택(복수 응답)



- 구체적으로 매출액별, 규모별, 업력별 대부분의 경우에서 상속세, 증여세 삭감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 또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추진 사업과 마찬가지로 앞서 조사한 기업승계 애로사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자 함을 추측할 수 있다.

[표30]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기업 혜택

		빈도(n)	상속세, 증여세 삭감 (%)	정부 포상 및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	국내외 기업 및 제품 홍보 (%)	자금심과 명예(%)	해외 명문장수기업과의 정례적인 교류기회 제공(%)	기타 (%)
전체		125	53.6%	34.4%	28.0%	18.4%	9.6%	1.6%
매출액	1,000억 미만	15	66.7%	40.0%	20.0%	13.3%	6.7%	0.0%
	1,000~2,000억 미만	37	51.4%	24.3%	37.8%	13.5%	13.5%	2.7%
	2,000~3,000억 미만	38	39.5%	47.4%	26.3%	28.9%	7.9%	2.6%
	3,000억 이상	35	65.7%	28.6%	22.9%	14.3%	8.6%	0.0%
규모	300명 미만	41	58.5%	29.3%	26.8%	17.1%	9.8%	0.0%
	300~500명 미만	29	51.7%	41.4%	31.0%	10.3%	10.3%	0.0%
	500~1,000명 미만	40	50.0%	27.5%	27.5%	30.0%	10.0%	5.0%
	1,000명 이상	15	53.3%	53.3%	26.7%	6.7%	6.7%	0.0%
업력	30년 미만	41	58.5%	26.8%	36.6%	12.2%	7.3%	0.0%
	30~40년 미만	28	50.0%	35.7%	17.9%	28.6%	7.1%	3.6%
	40~50년 미만	35	45.7%	51.4%	31.4%	11.4%	8.6%	2.9%
	50년 이상	21	61.9%	19.0%	19.0%	28.6%	19.0%	0.0%
업종	제조업	104	53.8%	34.6%	27.9%	19.2%	9.6%	1.9%
	서비스업	21	52.4%	33.3%	28.6%	14.3%	9.5%	0.0%
상장여부	상장	82	53.7%	36.6%	29.3%	20.7%	6.1%	1.2%
	비상장	43	53.5%	30.2%	25.6%	14.0%	16.3%	2.3%
계열사 유무	계열사 있음	92	53.3%	33.7%	25.0%	19.6%	10.9%	1.1%
	계열사 없음	33	54.5%	36.4%	36.4%	15.2%	6.1%	3.0%
기업유형	외감	47	53.2%	36.2%	23.4%	14.9%	10.6%	2.1%
	유가증권시장	45	60.0%	37.8%	24.4%	22.2%	8.9%	0.0%
	코스닥시장	33	45.5%	27.3%	39.4%	18.2%	9.1%	3.0%
승계유형	창업주	47	59.6%	36.2%	31.9%	17.0%	6.4%	2.1%
	승계 1세대	33	54.5%	30.3%	21.2%	18.2%	12.1%	3.0%
	승계 2세대 이상	22	54.5%	40.9%	18.2%	27.3%	9.1%	0.0%
	기업인수 및 전문경영인	18	44.4%	33.3%	33.3%	16.7%	11.1%	0.0%
	잘 모름	5	20.0%	20.0%	60.0%	0.0%	20.0%	0.0%



2017
 증가실
 견업체
 기승조
 업계사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PART IV 부록

1. 설문지

- 기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조특법 30조의6)와 기업상속공제의 관계
 - 기업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중 기업자산 상당액에 대하여 10% 또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함.
 - 상속개시 시점에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증여시점에는 증여세액의 마련을 위한 자금압박이 있을 수 있고,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의 조기승계를 저해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해침. 따라서 기업상속세제와 기업증여세제를 통합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업승계세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공익법인) : 발렌버그, 칼스버그 보쉬, 레고그룹 등 선진국의 많은 재벌그룹이 공익법인을 통하여 그룹을 승계하고 있으므로 기업승계 및 장수기업으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선진국은 공익법인을 통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가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대신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줌.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기업승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 상속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여러개 공익법인이 있는 경우 합산)에게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5%(출자 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10%)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정관에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20%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정도의 주식 규모는 기업승계에 도움은 되겠지만 위 사례와 같이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 효과를 보기는 어려움.
- 미국의 경우 주식보유한도가 20%이고 투자자산의 5% 이상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있음. 일본의 경우 주식보유한도가 50%이며, 독일 등 유럽국가는 주식보유한도에 제한이 없음.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의 길을 선진국과 같이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별첨2〉 현행 기업상속공제 제도 주요내용

◎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기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제18조) :** 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로써, 최대 500억원 한도로 일정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기업상속재산가액 100% 공제해주는 제도.

◎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경우 100억원 한도 내에서.

구분	기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재산의 100% 공제 • 기업기간별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200억원 / 15년 300억원 / 20년 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100억원 - 100억원 중 5억원 공제하고 10% 세율 적용 (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피상속인 (증여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 10년 이상 계속 가업(개인·법인) 영위 • 최대주주 등 지분을 50%이상 보유 (상장기업 30%이상) •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 *기업기간 중 50%,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부모 • 가업 10년 이상 계속 가업(법인)영위 • 10년이상 계속 최대주주 등 지분율 50% 이상 보유(상장기업 30%이상)
상속인 (수증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상속개시 2년 전 가업 종사 • 신고기한(6개월)내 임원 취임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공동상속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증여일 현재)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내 가업 종사 • 증여일 이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 관리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용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5년 이내 10%) • 상속 후 10년간 가업종사 • 상속지분 100% 유지 • 각 사업연도 정규직 80% 이상, 10년 평균 정규직 120% 유지(중소는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 이후 7년간 가업종사 • 증여지분 100% 유지

〈별첨3〉 현행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주요내용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명문장수기업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및 고용률 제고의 밑거름이 되도록 육성.

◎ 선정기준

- ①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사회적 기여+기업혁신역량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관련 법규준수, 인권·노동, 사회공헌 및 사회적 책임, 기업의 브랜드가치, 제품의 우수성, 보유 특허 수준, 연구개발비 비중 등 평가
- ②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인 경우 60점 만점)
- ③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확인표시) : 확인서(국문·영문) 발급 및 현판제작 부착,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 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인센티브) : 중기청 지원사업(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참여시 우대
- (기 타) : 정부포상 등 우선 추천 및 방송·신문매체 등을 활용한 기업 홍보로 사회적 존경 및 대외 인지도 제고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2017년 12월 인쇄

201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3528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둔산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www.dlec.or.kr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34, 3층

조사기관 : (주)비온드리서치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